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粉靑沙器 剝地技法의 再解釋과  
變容을 통한 陶瓷盒 開發 研究

-濟州 火山灰土와 非火山灰土를 活用한  
釉藥 開發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高 銀 志

2022年 2月

# 粉靑沙器 剝地技法의 再解釋과 變容을 통한 陶瓷盒 開發 研究

-濟州 火山灰土와 非火山灰土를 活用한  
釉藥 開發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吳 昌 潤

高 銀 志

이 論文을 産業디자인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2年 2月

姜恩宗의 産業디자인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이 광  
委 員 오 창  
委 員 허 민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22年 2月



# 목 차

Summary .....	vii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범위 .....	3
II. 이론적 고찰	
1. 분청사기의 이해 .....	5
1) 분청사기의 개념과 기법 .....	5
2) 분청사기 박지기법의 특징 .....	12
3) 현대작가들의 분청사기 박지기법을 이용한 작품 사례 .....	15
2. 합의 이해 .....	17
1) 합 의 개념 .....	17
2) 합 의 종류와 용도 .....	18
3) 현대작가들의 도자합 작품 사례 .....	20
III. 분청사기 박지기법의 재해석과 합 의 현대적 변용	
1. 박지기법의 재해석과 회토편장백사기의 정의 .....	22
2. 박지기법의 표현 방법 연구 .....	24
3. 합 의 현대적 변용 .....	29
IV. 제주토양을 이용한 유약 개발	
1. 유약 개발 방향 설정 .....	35
2. 실험과정 .....	38
3. 실험결과 분석 및 소결 .....	44

V. 도자합 개발 연구 및 유약 적용	
1. 시작품 제작과정 .....	48
2. 시작품 설명 .....	51
VI. 결론 .....	67
참고문헌 .....	69

## 도 목차

도1 분청사기 상감연화문 편병 .....	8
도2 분청사기 인화무늬 병 .....	9
도3 분청사기 박지연어문 편병.....	9
도4 분청사기 조화어문 편병 .....	10
도5 분청사기 귀얄문 항아리 .....	10
도6 분청사기 철화당초문 항아리 .....	11
도7 분청사기 덩병문 제기 .....	11
도8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항아리 .....	12
도9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철채 자라병 .....	12
도10 분청사기 박지 모란 무늬 편병 .....	13
도11 도구의 흔적 .....	13
도12 박지문 .....	14
도13 역박지문 .....	14
도14 면상감문 .....	14
도15 역면상감문 .....	14
도16 분청사기 박지연어문 병 .....	14
도17 분청사기 박지조어문 항아리 .....	14
도18 분청 스톨 - 물고기 .....	15
도19 모란문 은채 잔 .....	15
도20 Listening2019-10 .....	16
도21 new+pot+2 .....	16
도22 청자 항아리 .....	17
도23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항아리 .....	17
도24 백자 반합 .....	17
도25 뚜껑이 있는 반상기 .....	20

도26	달이 있는 뜰 .....	21
도27	별과 그림자 .....	21
도28	회토분장백사기 제작 과정 .....	23
도29	①형태를 사용한 합 도면1, 2, 3 .....	30
도30	②형태를 사용한 합 도면4, 5 .....	31
도31	③형태를 사용한 합 도면6 .....	32
도32	④형태를 사용한 합 도면7 .....	33
도33	⑤형태를 사용한 합 도면8 .....	34
도34	제주도양의 분포 현황 .....	36
도35	시료 채취 지역 .....	38
도36	화산회토(火山灰土) - 흑색토 .....	39
도37	화산회토(火山灰土) - 농암갈색토 .....	39
도38	비화산회토(非火山灰土) - 암갈색토 .....	39
도39	석회석과 배합한 유약 제작과정 .....	40
도40	석회석을 용융제로 사용한 유약용 소지 시편 < 백색자기토, 분청토, 분청토 (화장기법) 1차 소성 후 > .....	41
도41	석회석을 용융제로 사용한 유약을 시유한 소지시편 - 송당리, 수산리, 선흘 리, 가시리, 교래리 .....	42
도42	석회석을 용융제로 사용한 유약을 시유한 소지시편 - 판포리, 대정리, 저지 리, 청수리, 두모리(비화산회토) .....	42
도43	소성온도 그래프 .....	43
도44	백색자기토 시편 실험결과 .....	44
도45	분청토 시편 소성결과 .....	45
도46	소성온도 그래프 .....	50
도47	시작품 1의 세부 이미지 .....	52
도48	시작품 1의 세부 이미지 .....	52
도49	시작품 2의 세부 이미지 .....	54
도50	시작품 2의 세부 이미지 .....	54
도51	시작품 3의 세부 이미지 .....	56

도52 시작품 3의 세부 이미지	56
도53 시작품 4의 작업과정 이미지	58
도54 시작품 4의 세부 이미지	58
도55 시작품 5의 작업과정 이미지	60
도56 시작품 5의 세부 이미지	60
도57 시작품 6의 세부 이미지	62
도58 시작품 6의 세부 이미지	62
도59 시작품 7의 작업과정 이미지	64
도60 시작품 7의 세부 이미지	64
도61 시작품 8의 작업과정 이미지	66
도62 시작품 8의 세부 이미지	66

## 표 목차

표1 합 형태의 종류	17
표2 합의 용도별 분류	18
표3 박지기법의 표현 방법 연구	24
표4 표현방법의 적용 결과 - 분청토	26
표5 표현방법의 적용 결과 - 백색자기토	27
표6 합의 현대적 변용 분류 ①	29
표7 합의 현대적 변용 분류 ②	30
표8 합의 현대적 변용 분류 ③	31
표9 합의 현대적 변용 분류 ④	32
표10 합의 현대적 변용 분류 ⑤	33
표11 화장토(회토분장) 조합비	48
표12 백색화장토 조합비	48



표13 투명유 조합비 .....	48
표14 제주토양유약 조합비 .....	49

## 시작품 목차

시작품 1. 박지문합 .....	52
시작품 2. 박지문 결,합 .....	54
시작품 3. 박지 결, 합 .....	56
시작품 4. 결과 합 .....	58
시작품 5. 나무 결,합 .....	60
시작품 6. 제주 밭 결,합 .....	62
시작품 7. 오름 결, 합 .....	64
시작품 8. 제주 바람 결, 합 .....	6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eramic box  
through reinterpretation and transformation the  
Technique by Bakji of Buncheongsagi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glaze using Jeju  
volcanic ash soil and non volcanic ash soil. -

KOH EUN JI

*Industrial Art Design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ang Yoon Oh*

*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eramic box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and transformation the Technique by Bakji for Buncheongsagi, to develop and apply the ceramic glaze using the soil of Jeju as a natural material to the ceramic box, and then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ceramic expression showing the regional

character.

After initially learning about Buncheongsagi based on great interest in old tradition, the researcher got to know the inverse-Bakji technique in the middle of work utilizing the Bakji technique. As the reversed concept of Bakji technique, the inverse-Bakji technique is to scrape off not the background of pattern, but the pattern itself. The researcher thought this inverse concept could be a new starting point of ceramic art work.

As a unique ceramic style of Korea, the Buncheongsagi has seven different expression techniques based on its unique abstract image. It would be very meaningful to combine the texture and tradition of this Buncheongsagi with the modern aesthetic sense by using various materials.

Moreover, for more characteristic work, this study also conducted an experiment for the development of glaze by utilizing the soil of Jeju. The research processe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understood and considered the background of the time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Bakji technique for Buncheongsagi and ceramic box.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current work cases of using the Bakji technique and ceramic box.

Second, by understanding not simply the transition of decoration technique, but the aesthetic value and spirit of tradition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and transformation based on the case analysis

on the utilization of Bakji technique and ceramic box, and also interpreting it as a new category, this study focused on the differentiation from other works. Through the change of ideation by using the inverse-Bakji technique in the process of consideration, the concept of the new expression technique was defined. Also, after defining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ceramic box, this study drew and presented a design suitable for the modern aesthetic sense through various expressions of Bakji technique.

Third,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for the development of glaze utilizing the non-volcanic ash soil and volcanic ash soil as the characteristic regional material of Jeju, focusing on the regionality that could be found in Buncheongsagi.

Lastly, by actually producing and applying a prototype by using the glaze utilizing the selected Jeju soil and expression technique drawn through reinterpretation, this study presented a modern ceramic box that showed the uniqueness and regionality different from others.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환경이 주는 재료는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특히나 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도예작업에서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분청사기는 그 지역의 흙을 재료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자연환경이 작업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 청자로부터 변모, 발전하여 조선 초기에 제작되어졌다. 강진에서 청자를 만들다 전국 각지로 흩어진 도공들은 주변에 있는 거친 흙을 사용하고, 흙이 거칠어 좋지 않아 분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 분청사기의 유래이다. 그 시작이 고려시대 청자였으므로 분청사기는 상감으로 시작해서 인화, 박지, 음각, 철화, 귀얄, 덩병 등 여러 기법들이 탄생하였다. 그러므로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의 정교함으로 출발하여 익살적이고 해학적으로 변화해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도자 장르가 된 것이다.

현대의 분청사기 제작양상을 살펴보면 흔히 문양을 패턴화하여 적용하거나 그 대로 재현해내는 전승적 측면으로만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할 때 단순히 옛 것을 차용하는 정도로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런 있는 그대로 답습하는 작업이 아닌 분청사기의 여러 기법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새로운 표현 기법을 구축하고 연구자의 지역적 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의미의 표현기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분청사기의 일곱 가지 기법 중 박지기법은 태토에 분장한 백토를 긁고 무늬를 남겨 밝은 백토의 문양과 어두운 태토의 배경이 만나 강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 기법이다. 박지기법에 대한 고찰과정 중 역박지기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박지문을 반대로 생각하여 배경이 아닌 문양을 긁어낸 기법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편적 개념과 관념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박지기법을 단순한 전통적 계승이 아닌 전통개념을 역으로 바라보고 개념 자체를 역발상한다면 도자장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리라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전통이 현대에 접목 될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또 다른 표현가능성을 모색하고 합이라는 기형과 기능의 변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주의 특색 있는 자연재료인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를 활용한 유약 개발 실험을 진행하고 합에 적용하여 지역색이 짙은 새로운 도자장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업이란 기법과 재료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다른 요소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태어나고 자라온 곳인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한 자연환경과 재료를 지닌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청사기 박지기법의 재해석과 변용을 통해 도자합을 개발하고, 제주의 자연재료인 토양을 이용한 도예용 유약 개발을 진행한 후 합에 적용함으로써 지역 색이 묻어나는 도자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의 범위는 분청사기 일곱 가지 기법 중 박지기법으로 한정한다. 이 기법은 굽어낸 흔적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작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볼 수 있어 선택하게 되었다. 작품제작에 사용하는 유약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예용 유약이 아닌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자연환경의 재료는 제주의 지역적 소재인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를 사용한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고찰과정을 통해 분청사기와 합에 대해 이해한 뒤 박지기법을 재해석하고 합이 변용 과정을 거친다. 또한 제주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를 활용한 유약 개발을 진행한 후, 시작품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박지기법의 재해석과 변용을 통해 본 작업에 대한 연구자만의 표현 기법을 개념 정의하여 제시한다. 더불어 합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사용과정의 새로운 기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세부적인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청사기 박지기법과 합이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이해한다. 또한 현재 박지기법과 합이 사용되고 있는 작품 사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현대적인 미감에 적합한 새로운 표현기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박지기법의 재해석과 변용을 통해 본 논문에서 연구자의 작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 연구자의 표현기법에 대한 개념 정의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박지기법의 제작양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기법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기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를 적용할 합은 뚜껑이 있는 기물을 말한다. 현재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뚜껑이 몸통과 같거나 몸통보다 약간 작게 이루어져있어 이분화 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합은 일반적인 보관의 개념을 넘어 뚜껑과 몸통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에게 의해 또 다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변용하여 제시한다.

셋째, 제주는 도예 작업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심도 있는 재료 개발 연구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리하여 제주만이 지닌 특색 있는 지역재료인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를 활용한 유약개발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에 쓰일 시편은 도예작업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분청토와 백색자기토를 사용한다. 철분함량이 높은 제주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석회석을 첨가제로 사용한다. 비율변화에 따른 실험을 통해 적절한 유약을 분석하고 선정하여 다채로운 색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정에서 도출해낸 연구자만의 표현기법과 제주토양을 활용한 유약실험의 결과를 통해 사용 소지를 선택하여 시작품을 제시한다. 시작품은 사용자와 사용과정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진행하며, 선정된 유약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독특하고 지역성이 짙은 현대적인 도자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분청사기의 이해

#### 1) 분청사기의 개념과 기법

##### (1) 분청사기의 시대적 배경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 제작되었던 분청사기는 8000여년의 한국 도자기 역사 가운데 한국인의 감정을 구김살 없이 보여주는 그릇이다. 이 시기에 공민왕의 개혁정치인 전민변정도감이 실패하면서 정치와 경제는 더욱 혼미해졌다. 그리하여 고려 말은 매우 불안 국가 정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사회, 국방, 외교, 정치, 경제가 혼란해지자 강진을 중심으로 했던 상감 청자들이 점차 양식상의 퇴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형을 잃어갔고,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도처로 퍼져 나갔다. 국가의 배려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기술자들은 전국으로 그들의 살길을 찾아 흩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여러 지역에서 분청사기의 도편들이 발견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전국 도처로 퍼져 나간 기술자들은 자리를 잡은 지역에서 소규모의 가마를 만들어 도기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정형을 잃어가던 상감 청자는 서서히 탈바꿈하여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서 개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바로 이러한 가마들에서 제작된 것이 분청사기이며,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자연재료를 사용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분청사기는 상감 청자의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결코 같은 유형의 장르가 아니었다. 변화해간 기술자들의 의식 구조, 달라진 환경, 수요층의 변화 등은 분청사기에 영향을 주었고, 새로운 도자 양식을 만들었다.<sup>1)</sup>

그 당시에 분청사기는 특정한 용어가 없었으며, 일제강점기 일본사학자들에 의해 청자 발굴조사 중 함께 출토된 분청을 미시마(三島)라고 불렀고, 제 가치를

1) 강경숙, 「분청사기」, 대원사, 1990, p.30

인정받지 못했다.<sup>2)</sup> 그러다 1930년대에 고유섭(1904~1944)선생께서 일본이 사용한 미시마(三島)라는 용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백토를 분장한 회청색의 사기”라는 의미의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라고 개념 정의를 하였다.<sup>3)</sup> 15세기 후반에 분청사기는 지방화 되면서 독특한 지방 양식을 보이고,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분청사기 생산의 마지막 시기인 16세기 전반에는 그릇 표면을 백자화하는 방향을 추구하여 귀얄 기법과, 덩병기법이 성행하였지만, 1470년경부터 백자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듯이 자연스럽게 소멸하였다.

## (2) 분청사기 변천 과정

분청사기의 변천 과정은 조선백자 시기 구분과 같이 구분되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인 시기 구분은 그릇, 문헌 기록 그리고 각 지방 분청사기 가마터로부터 채집된 각종 도편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초기(발생기), 중기(발전기), 후기(쇠퇴기), 말기(소멸기)로 구분되어졌다.<sup>4)</sup> 이 네 시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초기(발생기)

초기 60년 동안은 고려 상감청자가 쇠퇴하는 반면 분청사기가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퇴화 되어가는 상감청자의 무늬가 그대로 이어지며 기형, 무늬, 유약이 재정비되어 조선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상감청자에서 간혹 쓰이던 인화 기법이 중심 무늬로 등장함으로써 분청사기 인화 기법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 ② 중기(발전기)

중기에는 세종대왕의 치세 연간으로 민족 문화가 융성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도자 공예에서는 분청사기가 다양하게 발전이 이루어져 상감, 박지, 음각 등의 기법 양상이 나타난다. 태토는 밝아지고 유약은 이물질 없이 투명해졌으며 고려적인 전통에서부터 조선적인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450년부터 1480년 동

2) 홍지수, “1990년대 이후 한국 현대도예의 전통분청의 재해석과 변용”, 한국기초조형학회, vol.17, no.5, 2016, p.615

3) 엄정자, “분청 기법을 활용한 도제 합 연구 : 매화 문양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테크노전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4

4) 강경숙,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p.137

안 광주의 분원이 성립되면서 모든 기법이 정형화된 반면 무늬가 정리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귀얄 기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가마에서는 귀얄 기법이 인화기법과 함께 출토된다. 이 시기의 인화 기법은 압인 상태와 무늬의 짜임새가 고르지 않고, 얇게 압인되어 백토 분장이 지저분하게 나타나 제작의 소홀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 ③ 후기(쇠퇴기)

후기는 쇠퇴기로서 1470년경부터 1540년경 동안이다. 이 시기에는 귀얄 기법이 서서히 사라져갔고 담금 분장 기법이 출현하면서 백자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상감과 인화 기법 또한 쇠퇴해 갔으며, 공주 학봉리 계룡산 일대에서 제작된 철화분청사기와 같이 개성이 강한 지방 양식들이 발전하여 분청사기의 또 다른 특징들이 나타났다. 철화 기법이 사용된 분청사기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 유행한다. 유약은 녹색이 짙어지며 태토에는 가마에서 백자와 함께 수집된다.

### ④ 말기(소멸기)

1540년경부터 1600년경까지는 말기로 분청사기의 소멸 단계에 들어간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에서 제작했던 청자보다 백자에 대한 선호가 많아지게 된 시대적 흐름을 갖는다. 티 없이 흰 백자는 청자와 달리 태토 속 불순물들이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도자기 제작 기술이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새롭게 나타난 도자인 백자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점차 문양이 단순화 되고 백색을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분청사기는 고려 상감청자의 전통을 이어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 되었으며, 백자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자연 소멸되고 만다.

### (3) 분청사기의 특징과 기법

분청사기의 특징은 강진에서 청자를 만들다가 전국 각지로 흩어진 도공들이 주변에 있는 거친 흙을 사용하였다는 것에서 지역적 소재의 활용이라 볼 수 있다. 즉, 지역에서 재료를 채취하여 사용하다 보니 흙이 좋지 않아 백토를 그릇 표면에 바르는 백토 분장 기법을 사용한 것이며 분청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

백토 분장 기법이란 원하는 기물을 만든 다음 표면을 백토로 장식하는 것으로 밝은 백토와 어두운 태토가 만나 강한 색상대비를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분청사기는 백색과 회색의 은은한 조화, 투박하지만 자유분방한 선과 색을 가지고 있어 청자, 백자와 다른 한국의 미를 보여준다. 분청사기의 기법은 백토분장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상감기법, 인화기법, 박지기법, 음각(조화)기법, 철화기법, 귀얄기법, 덩병기법으로 총 일곱 종류로 나눈다.

#### ① 상감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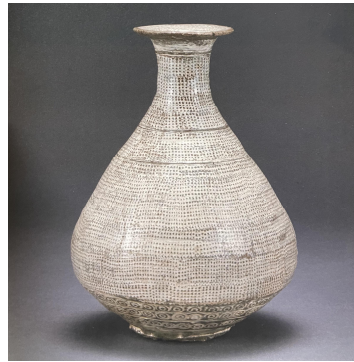
상감기법은 음각으로 무늬를 새기고 백색이나 검은 색이 나는 흙으로 메우고 유약을 발라 구워내는 방법이다. 고려 상감청자의 양식을 계승하여 제작했기에 고려청자와 구분이 모호하기도 하였지만 조선적인 무늬로 발전하였고 그 구분이 점차적으로 나타난다. 분청사기에는 선상감 기법과 넓게 무늬를 새기는 면상감기법이 있는데, 특히 면상감 기법에서 더욱 특징적인 아름다움을 보인다. 이 기법은 흑색감입은 거의 사라지고 백토 감입 위주로 변화해갔다. (도1)



도1 분청사기 상감연화문 편병

## ② 인화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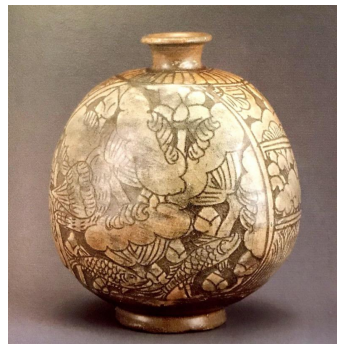
인화기법은 꽃무늬가 새겨진 도장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무늬를 찍고, 그 속에 백토를 메우는 일종의 상감기법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기물의 일부분에 사용되어지다가 이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점차 무늬가 작아지고 표면 가득 정성스럽게 찍어내면서 추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무늬의 짜임새는 단정하고 정형화된 특징을 보이며 갈수록 조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도2)



도2 분청사기 인화무늬 병

## ③ 박지기법

박지기법은 백토를 분장하고 원하는 무늬를 새긴 뒤 배경 부분의 백토를 긁어내어 밝은 백색 무늬와 어두운 회색의 배경이 잘 조화된 기법을 말한다. 이 기법은 세종 때 많이 사용되었고 활발하게 발전하였다. 이 기법은 강한 색상대비를 이용하여 무늬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미감에도 잘 영합된다. 또한 배경이 아닌 무늬를 긁어내는 역박지기법을 사용한 작품이 드물게 나타난다. (도3)



도3 분청사기 박지 연어문 편병

#### ④ 음각(조화)기법

음각기법은 백토를 분장한 후에 원하는 무늬를 음각으로 굽어 새기는 기법이다. 일명 조화기법이라고도 불리며, 백색 바탕에 회색의 선 무늬가 새겨지는 특징을 갖는다. 이 시기의 음각기법은 제작이 쉽기 때문에 문양 표현이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며, 박지 기법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4)



도4 분청사기 조화어문 편병

#### ⑤ 철화기법

철화기법은 백토를 분장한 후에 철분이 많이 포함된 안료를 사용하여 붓으로 그림을 그려 장식하는 기법을 말한다. 주로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계룡산 지역에서 발굴되며, 풍부한 철화원료가 도요지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다. 이 기법은 기물의 표면을 귀얄로 분장하고, 철화 안료를 사용하여 추상적이고 익살스러운 무늬가 특징이다. 철화안료의 색상은 흑갈색이나 적갈색 또는 거의 흑색을 나타낸다. (도6)



도5 분청사기 귀얄문 항아리

⑥ 귀얄기법

귀얄기법은 풀이나 동물의 털로 제작한 귀얄이라는 도구에 백토를 묻혀 바르는 기법이다. 붓자국에서 힘 있고 빠른 운동감과 독특한 질감을 확인 할 수 있다. 귀얄에 의한 백토 분장은 음각(조화)기법, 박지기법, 철화기법의 기본 전제가 된다. (도5)



도6 분청사기 철화당초문 항아리

⑦ 덤벙기법

덤벙기법은 백토를 탄 물에 그릇의 굽부분을 잡고 거꾸로 덤벙 담갔다 꺼내는 기법이다. 귀얄과 같은 붓자국이 없어 표면이 매끄럽게 표현되며, 표면 전체가 백토로 씌워진 경우에는 언뜻 백자와 같아 보일 수도 있다. 분청사기의 변천과정에서 말기에 많이 발견되며, 이 시기에 백자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백자화 하려고 하는 과정을 보인다. 기물을 백토 물에 담글 때 기물의 굽을 잡기 때문에 굽 언저리 부분에는 백토가 묻지 않는다. 그 주변은 흘러내리는 자국이 남게 되면서 재미있는 추상성을 볼 수 있다. (도7)



도7 분청사기 덤벙문 제기

## 2) 분청사기 박지기법의 특징

일곱 가지 기법 중 박지기법은 백토를 분장을 하고, 무늬를 제외한 배경을 다시 긁어내어 태토를 드러내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배경을 긁어내면서 남은 결의 흔적들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제작자의 감성과 느낌을 선택적으로 남긴다는 부분에서 새로운 표현기법을 도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 사용하고자 한다. 박지기법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박지기법

박지 기법은 그릇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백토로 분장 한 후에 원하는 무늬를 음각 선으로 그린 뒤, 무늬 이외의 바깥 배경을 긁어내어 백색의 무늬와 회색의 배경색이 대조되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투명한 유약을 발라 선명한 대비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더욱 극대화 하기 위하여 긁어낸 배경 위에 철사를 칠해 흑갈색을 띄게 한 방법도 있다. 박지 기법은 세종 때에 생동감이 넘치는 무늬들이 많이 나타나고 발전되었으며, 소재는 모란이나 모란 넝쿨, 잎 같은 식물 위주로 무늬를 장식하였다. 또한 조화기법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분청사기에 서만 국한하여 사용되어진다. 여백의 미가 강조되는 다른 기법과 다르게 기물 전체를 화려하게 표현하며 일곱 가지 기법 중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박지 기법이 사용된 예로는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향아리(도8)와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철채 자라병(도9) 등이 있다.



도8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향아리    도9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철채 자라병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향아리(도8)는 짙고 어두운 회색과 새하얀 백토 분장이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태토 위에 썩은 백토 분장을 자세히 보면 귀얄 자국이 드러날 정도로 얇게 발린 곳이 보이며, 입구 부분과 몸통의 아랫부분은 칠하다 만 듯한 모습을 보인다. 무늬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음각선으로만 남기고 중간 부분을 박지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철채 자라병(도9)은 백토를 분장한 윗면에 박지기법을 사용하여 큼직한 모란문을 남겨 내었다. 배경을 긁어낸 공간에 검은색으로 발색하는 철사 안료를 칠함으로써 백색무늬와 흑색 바탕이 강렬하게 대조되는 효과를 주었다. 이 철사 장식은 조화나 박지문에서만 보이지만 사용된 경우가 거의 드물어 귀하게 여겨진다.

분청사기 박지 모란 무늬 편병(도10)은 귀얄로 백토를 분장한 뒤, 문양을 넣어 배경을 긁어내었다. 문양 부분에 얇게 분장되어 선명한 붓자국이 보인다. 또한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11과 같이 배경을 세밀하게 긁어내면서 도구로 인해 남은 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도10 분청사기 박지 모란 무늬 편병



도11 도구의 흔적

## (2) 역박지기법

박지기법이 백토로 귀얄한 후 음각선으로 문양을 그리고 문양선 밖의 바탕을 긁어내어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역박지기법은 기면에 음각선으로 문양을 그리고 귀얄로 분장을 한 후 박지기법과 반대로 문양선의 안쪽면을 긁어내어 바탕의 백

색 화장토와 박지된 문양면의 진한 태토색이 대비가 되어 문양을 집중되게 하고, 돋보이도록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역박지문(도13)의 시문기법은 면상감문(도14)이나 박지문(도12), 역면상감문(도15)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양의 효과는 유사하지만 시문의 수고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기물의 전면을 백토로 빠르게 분장하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이다.<sup>5)</sup> 이 기법은 연구자의 작업과정에서 발상을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도12 박지문

도13 역박지문

도14 면상감문

도15 역면상감문

분청사기에 역박지기법을 쓴 유물의 수는 많지 않지만 독특한 제작기법 및 의장(意匠)과 형식으로 다른 기법과 차별화 되는 독특함을 가진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분청사기 박지 연어문 병(도16)과 분청사기 박지 조어문 항아리(도17)가 있다.



도16 분청사기 박지연어문 병



도17 분청사기 박지조어문 항아리

5) 최성재, "계룡산 학봉리 분청사기 역박지문의 특성과 철화분청사기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vol.10, 2013, p.68

3) 현대작가들의 분청사기 박지기법을 이용한 작품 사례

분청사기 박지기법을 사용하는 작품 사례를 찾아보았다. 현대에서는 박지기법을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다양한 시도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1) 허상욱



도18 분청 스톨 - 물고기



도19 모란문 은채 잔

허상욱은 박지기법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작가이다. 작품을 보면 흙 본래의 색감을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잘 어우러질지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이 보인다. 화장토를 바를 때 나오는 질감과 어디에 그릴지, 얼마만큼 그림을 그려낼지 판단하고 작업한다. 흙을 보면 차분하면서도 어두운 색감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분청사기보다 좀 더 회색에 가깝다. 사이즈가 큰 스톨부터 손에 잡히는 잔까지 조형적인 작품과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철채 자라병에는 굵어낸 배경에 어두운 철사 안료를 발랐다면 허상욱 작가는 박지기법으로 굵어낸 배경에 은채를 바른 것이 특징이며, 전통을 재해석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2) 김연수



도20 Listening2019-10



도21 new+pot+2

김연수 작가는 용기를 만드는 기법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지만 만들어낸 기물에 표현하기 위해 태토와 반대되는 색의 화장토를 바르고 굽어내는 박지기법을 사용한다. 관계성에 기반하여 작품을 제작하는데 단절감, 자신과의 대화, 다양한 나의 얼굴을 모티브로 작업하고 있다.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얼굴을 새겨 넣거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 소재를 그려 넣는 것이 특징이다. 어린아이 같은 익살적인 그림체와 재료나 기법에 구애받지 않는 작업을 한다. 다른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며 자신만의 그림체로 박지기법이 현대에서 활용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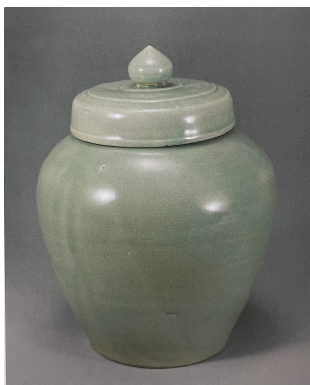
## 2. 합(盒)의 이해

### 1) 합(盒)의 개념

사전적 의미의 합이란, 뚜껑이 있는 기물을 말하며, 서양에서는 covered bowl 이란 용어로 사용된다.<sup>6)</sup> 합은 뚜껑을 완전히 들어내어 분리 시킬 수 있는 이분화 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음식물이나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용기이다.

합은 상·하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며, 윗부분은 뚜껑이고 아랫부분은 몸통이라고 일컫는다. 뚜껑이 있음으로써 보관한 내용물을 외부와 차단하고 보호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뚜껑의 사이즈는 몸통과 비슷하거나 좀 더 작은 것이 보편적이다. 몸통과 뚜껑이 맞물려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로 인해 제작할 때에 다른 기물보다 정교한 작업을 요한다.

합의 제작과 사용 시기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려진 바가 없으나 뚜껑이 있는 용기는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제작되어져 왔다.<sup>7)</sup> 또한 시대와 문화에 따라 형태나 재료의 차이가 있지만 보관한다는 목적은 동일하다.



도22 청자 항아리    도23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항아리    도24 백자 반합

6) 전지혜, 「마대가 있는 도자합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4

7) 엄기성, 「결구법의 형태적 요소를 활용한 합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12

현대의 합은 보관이라는 실용성과 보여 지는 장식성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되어지고 있다. 어떠한 내용물을 보관하는지에 따라 형태와 용도를 한정하게 된다. 따라서 형태와 용도로 분류한 도표를 살펴봄으로써 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 2) 합의 종류와 용도

### (1) 합의 종류와 용도

표1 합 형태의 종류<sup>8)</sup>

분류	용도
원형합	원형합은 구형에 가까운 형태로 기물이 낮고 뚜껑과 몸통의 크기가 같거나 뚜껑이 몸통에 비해 작은 것으로 기물 전체의 높이가 뚜껑보다 작은 원형의 합이다.
원통형합	원통형합은 일반적으로 기물 전체의 높이가 규격보다 큰 형태이며 몸통의 높이보다 뚜껑의 높이가 낮은 형태이다.
각형합	도제 합에 있어 소성시 변형이 많은 관계로 그 형태가 많이 있지는 않으나 각을 많이 줌으로써 안정감을 이룬 합이다.
호형합	항아리 형태로 삼국시대 골호나 조선시대의 식합에서 볼 수 있다.
상징적 형태의 합	상징적 형태는 어떤 자연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식물형과 꽃의 표현, 열매의 형태, 동물의 형태 등을 말한다.

8) 이연정, “꽃을 소재로 한 도제 향합(香盒) 개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5-6

표2 합 의 용도별 분류9)

분류	용도
사리합 (舍利盒)	부처(佛陀)·고승(高僧) 또는 성자의 유골을 말하는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합이다.
골호 (骨壺)	화장(火葬)한 뒤 남은 뼈(유골)를 추려 담아 땅에 매장할 때 사용하는 항아리 형태의 장골용기(藏骨容器)이다.
태항 (胎缸)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따로 항아리에 넣어 작은 무덤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향합 (香盒)	고려시대에 제작된 합중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는 것으로 향을 담아 두고 쓰던 소형 합이다. 제례나 불교 의식에 쓰이거나 혹은 여성 화장용기로도 쓰였으리라고 추정된다.
반합 (飯盒)	식합의 일종으로 주로 밥을 담은 뚜껑이 있는 그릇이다.
찬합 (饌盒)	반찬을 넣어두는 용기인 찬합은 원형부터 사각, 팔각, 십이각까지 그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다.
분합 (화장합 化粧盒)	분합은 삼국시대의 토기로 만든 합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의 청자분합, 백자분합이 제작되었다.
담배합 (煙草盒)	연초를 건조하게 보관하여 변질을 막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으로서 목제 합이 주로 제작되었다.
인주합 (印朱盒)	낙관(落款)을 찍을 때 쓰는 도장밥(인주)을 넣어두는 합이다.
묘지합 (墓誌盒)	무덤 옆에 묻을 때 묘지를 담은 합이다. 도입된 시기는 불분명하나, 전쟁으로 비석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여 무덤 속에 함께 집어넣었다.
약합 (藥盒)	약용으로 쓰인 차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이다.
모자합 (母子盒)	큰 합 속에 여러 개의 작은 합을 넣어 한 조를 이루고 있는 합을 말한다.

9) 조경희 "도제 합 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6

### 3) 현대 작가들의 도자합 작품 사례

#### (1) 고희숙



도25 뚜껑이 있는 반상기

고희숙은 슬립캐스팅 과정에서 정형화된 틀이 주는 경질감과 물레 성형에 의한 수작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을 결합하였다. 안쪽은 푸른 유약을 발라 외부와 색 대비를 갖게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느낌을 준다. 형태는 미니멀리즘에 가깝고 실용성에 중점을 두었다. ‘백색도시의 아침’은 뚜껑의 구조를 손잡이와 일체가 되도록 변형하여 제작한 합이다. 합의 뚜껑 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구멍을 만들었고, 그 공간으로 손가락을 넣어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뚜껑을 열기 위해 형태적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디자인이다. 고희숙 작가는 캐스팅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 부분에 수작업 요소를 엮는 것이 특징이다.



(2) 장완



도26 달이 있는 뜰



도27 별과 그림자

장완은 판성형기법을 사용하여 보편적인 원기둥형의 합이 아닌 직육면체형의 합을 제작한다. 반듯한 사각형의 기물을 하나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생각하여 주변의 풍경을 담아낸다. 또한 합이 결합되는 것에서 둘이상의 형태가 한 몸통으로 결합되며 새로운 외형으로 나타난다는 조형적 의미로 해석하여 작업한다. 백색의 흙을 사용하여 흐릿해 보일 수 있지만 사각형의 기물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재단함으로써 그림자 효과로 인해 형태가 더 돋보이도록 하였다. 여러 형상이 결합되었을 때 하나의 풍경으로 보이는 점을 모티브로 하여 몸통과 뚜껑, 면이 이루는 구조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일상의 풍경을 담은 기물을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 Ⅲ. 분청사기 박지기법의 재해석과 합의 현대적 변용

#### 1. 분청사기 박지기법의 재해석과 회토분장백사기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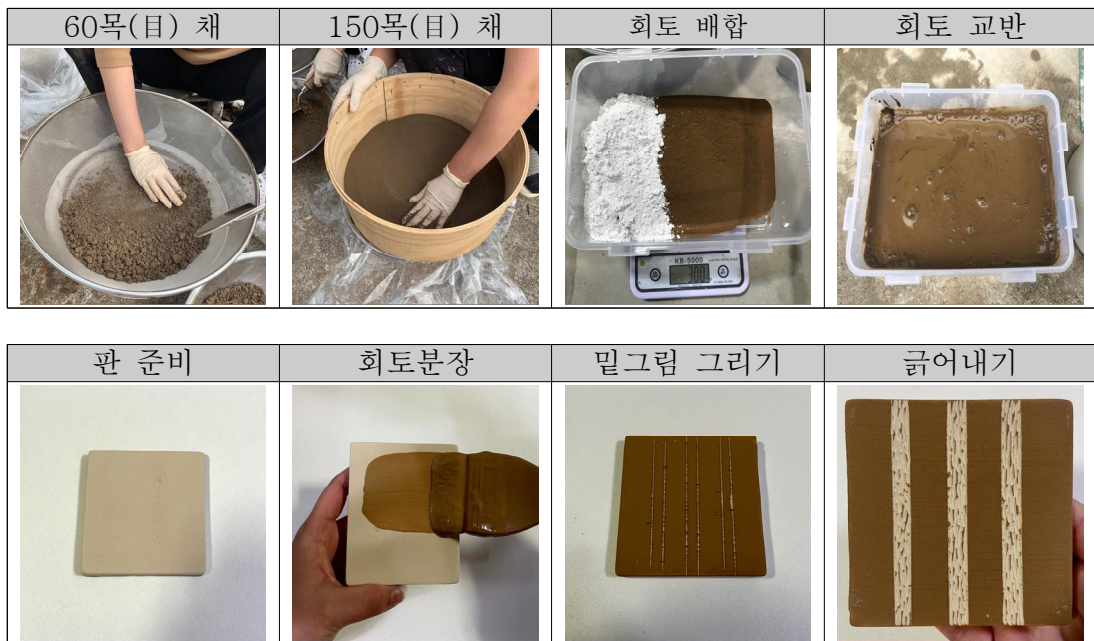
분청사기는 어두운 태토를 이용하여 기물을 만든 다음 백토로 분장하는 것으로 문양의 백색과 회색의 바탕색이 대조되도록 표현하는 도자양식이다. 표현방법에 따라 일곱 가지 기법으로 나뉜다. 그 중 박지기법은 백토를 분장한 후 음각선으로 문양을 그리고, 문양선 밖의 바탕을 긁어내어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 박지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역박지기법에 대하여 접하게 되었다.

Ⅱ. 이론적 고찰 2)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역박지기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박지기법과는 반대로 문양선의 안쪽 면을 긁어내어 짙은 태토를 드러내고, 바탕의 백색 화장토와 대비되어 문양을 돋보이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분청사기에서 역박지기법은 쓴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지점에서 연구자는 역박지기법처럼 역으로 발상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도예 작업에서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표현방법과 연구자의 작업적 정체성을 구체화 시키는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분청사기와 박지기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작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분청사기 제작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분청토 위에 밝은 백색 화장토를 분장하여 문양 표현방법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의 분청사기 박지기법에 대한 재해석은 분청사기 제작과정을 역으로 바라보고, 박지기법 표현방법인 긁어내는 방법을 통하여 작업과정에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사용소지에서 어두운 분청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밝은 백색자기토를 사용하고 그 위에 어두운 회토로 분장하는 방식인 역으로 해석하여 분청사기를 표현하였다. 또한 화장토 사용을 제주의 화산회토인 농암갈색토를 이용하여 화장토(회토분장)를 개발하고 제작하여 특색 있

는 작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어두운 색에 태토가 아닌 밝은 백색의 태토로 기물을 제작하고, 그 위에 회토를 분장하여 문양을 표현하는 백사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위에 내용을 종합하여 분청사기 박지기법을 재해석한 연구자의 작업에 대한 개념정의는, ‘회토를 분장한 백색의 사기’라는 뜻의 회토분장백사기(灰土紛粧白沙器)이다. 회토분장백사기를 제작하는 구체적인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28 회토분장백사기 제작 과정

첫째, 60목(目) 채를 이용하여 돌과 나뭇가지 같은 불순물을 거르고, 고운 입자의 토양시료를 얻기 위해 미세한 150목(目) 채로 한 번 더 걸러낸다.

둘째, 화장토 원료인 와목, 장식, 규석과 토양시료를 배합하여 물과 교반한다. 회토 조합비는 아래 표와 같다.

셋째, 백색자기도 판을 성형하고 재단하여 시편을 준비하고 제작한 화장토(표 11)를 붓으로 분장한다.

넷째, 반건조 상태가 된 시편에 음각선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도구를 사용해 긁어내어 완성한다.

## 2. 박지기법의 표현 방법 연구

한국의 도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도자 전통의 맥(脈)이 단절되었던 탓에 우리의 독자적인 철학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했고 그에 근간하여 도자전통의 해석과 변용을 온전히 도모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다.<sup>10)</sup> 고찰과정에서 나타난 현대 작가들의 작업 양상을 살펴보면 단순히 옛 것을 모사하거나 기법의 단순 차용 등 소극적 범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분청사기 박지기법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옛 전통을 단순히 장식기법의 변이가 아닌 전통이 지닌 미적가치와 정신을 이해하고 새로운 범주로 해석하여 다른 작품과 차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양의 상징적 의미는 약화 되었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식적 기능은 점차 강조되어 생활 곳곳에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감성에 의한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문양의 개발과 자신만의 표현 기법을 찾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분청사기의 장식기법과 문양은 도공 개인의 의지가 반영된 자유롭고 대담한 표현이며 형태가 정형화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정적이고, 깔끔함이 강조된 문양 표현을 강조하며 작품의 기법적인 완성도를 높여서 제작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계획적이고 정교함을 작품에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에 도11을 보면 박지기법을 활용하면서 화장토를 바르고 배경을 하나씩 긁어내는 과정에서 도구에 의해 결이 남는 흔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면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본 연구자는 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기물의 배경을 한 땀 한 땀 긁어내는 것에 집중하여 다양한 표현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장식적 표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도구를 활용하였다. 재해석한 표현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10) 홍지수, "1990년대 이후 한국 현대도예의 전통분청의 재해석과 변용", 한국기초조형학회, 2016, vol.17, no.5, p.614

11) 엄정자, "분청 기법을 활용한 도제 합 연구 : 매화 문양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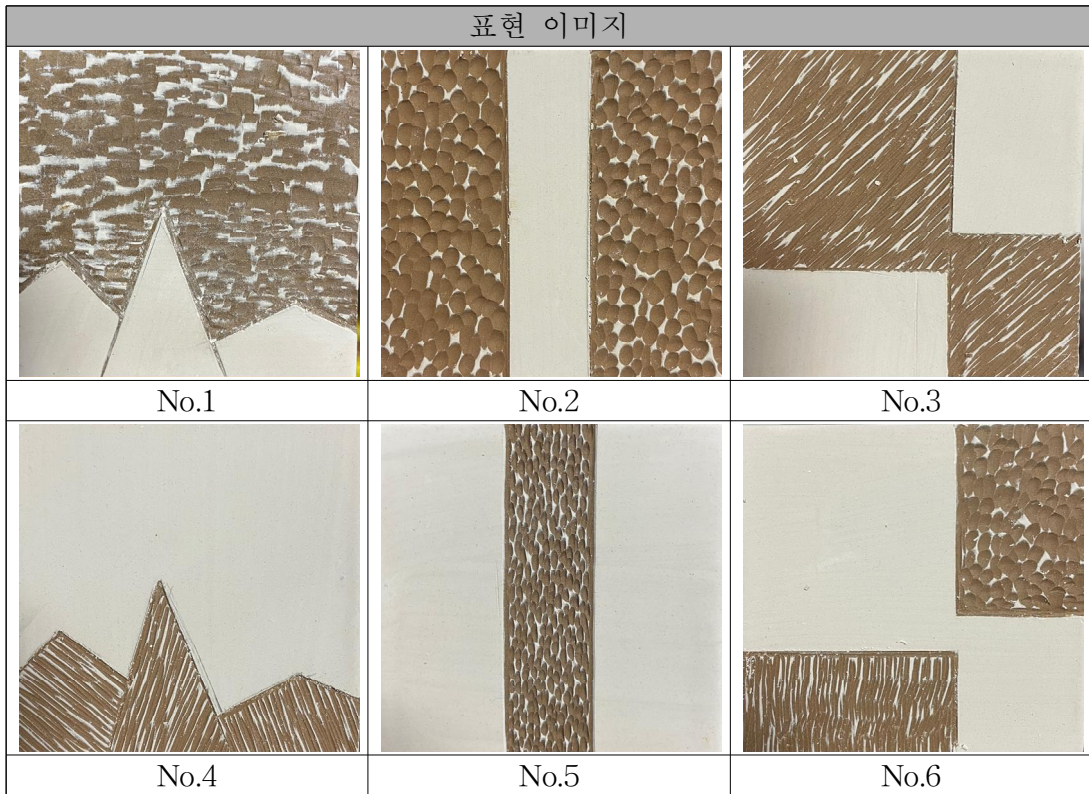
표3 박지기법의 표현 방법 연구

분류	No.	도구	결과	흙종류 /화장도
‘○’ 모양	①			분청토 /백색 화장도
	②			분청토 /백색 화장도
	③			백색 자기토 /회토
‘△’ 모양	④			분청토 /백색 화장도
	⑤			백색 자기토 /회토

	⑥			분청토 /백색 화장토
	⑦			백색 자기토 /회토
‘—’ 모양	⑧			백색 자기토 /회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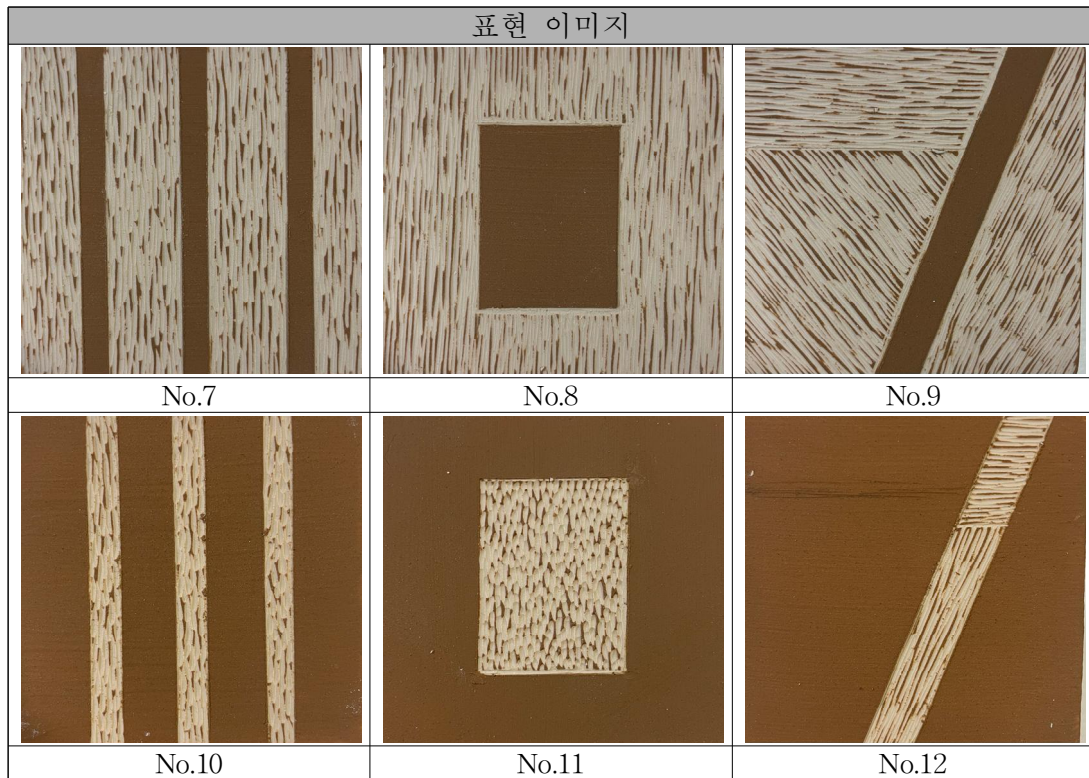
①, ②, ③번은 ‘○’ 모양을 가진 도구를 사용하였다. ①번은 넓은 원형으로 되어 있어 긁어낸 단면이 납작한 아치형의 단면을 보였다. ②번은 둥근 모양에 막혀있는 형태인 도구로서 긁어냈을 때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모습을 보였다. ③번은 ①번보다 작은 사이즈의 도구이다. 둥근 모양의 도구이지만 긁어냈을 때에는 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④, ⑤, ⑥, ⑦번은 ‘△’ 모양을 가진 도구를 사용하였다. ④번은 갈고리형의 도구로서 긁어내었을 때 물방울 모양을 보였으며, 작고 세밀한 부분에 사용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되었다. ⑤번은 뾰족한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긁었을 때 얇은 선의 모습을 보였다. ⑥번은 ⑤번과 비슷한 형태의 도구이지만 보다 완만한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긁어낸 형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⑦번은 뿔려있는 삼각형 모양의 도구로써 긁어낸 단면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장점을 보였다. ⑧번은 ‘—’ 모양으로 긁어낸 단면이 일자형태를 띄며 도구의 형태와 가장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흙을 긁어낼 때 표현의 다양성을 찾기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박지기법을 재해석한 과정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 표현방법의 적용 결과 - 분청토



No.1 ~ No.6 시편은 박지기법의 특징인 분청토에 백색 화장토를 발라 긁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No.1 ~ No.3 시편은 배경을 긁어내는 박지기법을 사용하였다. No.1 시편은 ⑧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었고 주는 힘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o.2 시편은 ③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도구보다 넓은 면적으로 긁어낸 흔적을 볼 수 있었다. No.3 시편은 ⑤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 아닌 대각선으로 긁어내어 결의 흔적에서 방향성을 줄 수 있었다. No.4 ~ No.6 배경이 아닌 문양을 긁어내는 역박지기법을 사용하였다. No.4 시편은 ⑦를 사용하였고 긁어내는 방향을 다르게 하여 자연스럽게 문양의 경계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No.5 시편은 세밀하게 작업할 수 있는 ④도구를 사용하였고 No.2시편과는 다르게 문양이 더 집중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No.6 시편은 한 가지의 도구가 아닌 ③도구와 ⑤도구를 혼합하여 표현의 재미를 주었다.

표5 표현방법의 적용 결과 - 백색자기토



No.7 ~ No.12 시편은 백색자기토로 제작하여 재료의 변이를 시도하였으며, 어두운 흙을 밝은 색의 흙으로 덮어내는 일반적인 분청사기 기법이 아닌 반대로 밝은 흙에 어두운 회토를 발라내어 실험하였다. No. 7~ No.9 시편은 배경을 긁어내는 박지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청토와 다르게 박지기법을 사용한 시편에서 문양이 더 집중되는 효과를 얻었다. No.7 시편은 직선이 반복되는 이미지의 문양이며, 긁어낸 단면이 깔끔하게 작업 되는 ⑦도구를 사용하였다. No.8 시편은 ⑥도구를 사용하였고 모던한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단순한 도형의 문양을 새겨 넣었다. 표현한 이미지는 한 건물 주위로 비가 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No.9 시편은 ⑤도구 하나로 대각으로 지나가는 직선 주위로 긁어내는 방향을 달리하여 다른 구역으로 보여지도록 하였다. No.10 ~ No.12 시편은 배경이 아닌 문양을 긁어내는 역박지기법을 사용하였다. No.10 시편은 ③도구를 사용하여 넓은 단면의 문양 표현을 하였다. No.11 시편은 ④도구로 짧은 땀으로 긁어내었다. No.12 시편은 ⑦도구로 직선에서도 구역을 나누어 긁어내어 No.9 시편과 다르게 깔끔한 느낌을 내었다. 시편 모두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요소를 넣었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달라지는 표현 방법과 현대적 미감에 어울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3. 합 의 현대적 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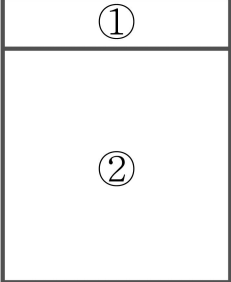
현대 도자예술은 다양한 표현요소를 활용함으로써 질감은 물론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가 연구되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적 이미지가 접목되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합은 어떠한 내용물을 담는가에 따라서 크기, 형태, 용도가 한정되어 왔는데 시대가 바뀌게 되면서 점차 그 쓰임이 달라지고 있다. 본 연구자가 정의하는 현대적 변용이란 기능을 고정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의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합을 의미한다.

합은 분청사기 기형들 중에서도 많이 제작되었고 시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과거에 종교용 혹은 의식용 용기로 사용되던 합이 현대에서는 일상생활 용기로써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생활문화의 향상과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실용적 기능과 더불어 심미성을 갖춘 생활용품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합 디자인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물건을 담아서 보관하는 것만이 아닌 작품으로써 사용되고 있다.<sup>12)</sup> 합의 특징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뚜껑이 몸통과 같거나 몸통보다 약간 작게 이루어져있어 이분화 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보관이라는 실용성과 겉으로 보이는 심미성을 가진 기물로 두 가지의 특성이 강조되는 기물이다. 여러 형태로 제작하여 다양한 쓰임을 가질 수 있고 장식적 표현을 하기에 효과적인 기물이라고 판단되어 선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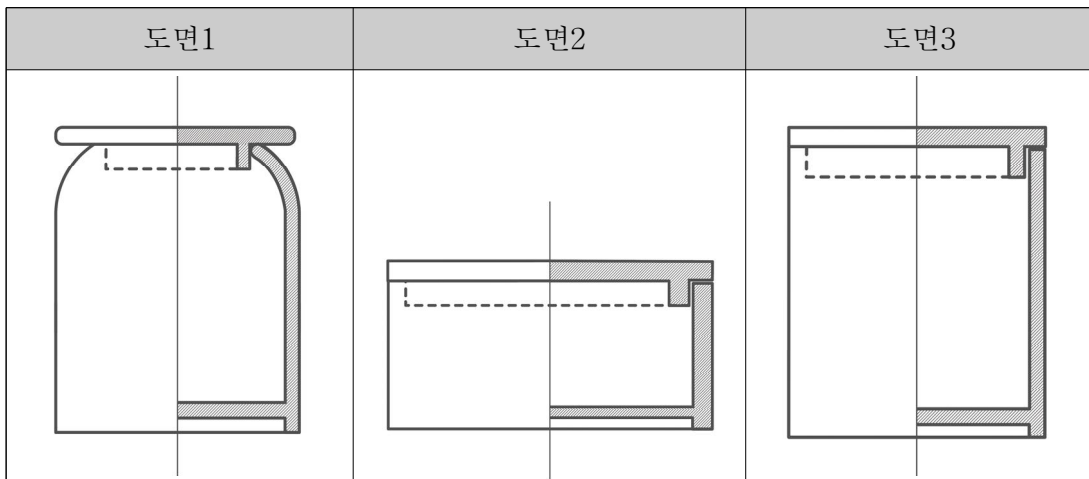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의 합은 실용적 기능 부분에서 일반적인 보관의 개념을 넘어 뚜껑과 몸통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의 의해 또 다르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용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용성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형태의 도면화를 진행하였다. 합에 변용의 대해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12) 곽경인, "陶製 盒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6

표6 합의 현대적 변용 분류 ①

NO.	형태	분류
①	두 기물이 결합하는 형태 (몸통의 비율이 큼)	

①형태는 두 개의 기물이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를 이룬다. 뚜껑보다 몸통의 비율이 크고, 뚜껑이 없이는 형태로 결합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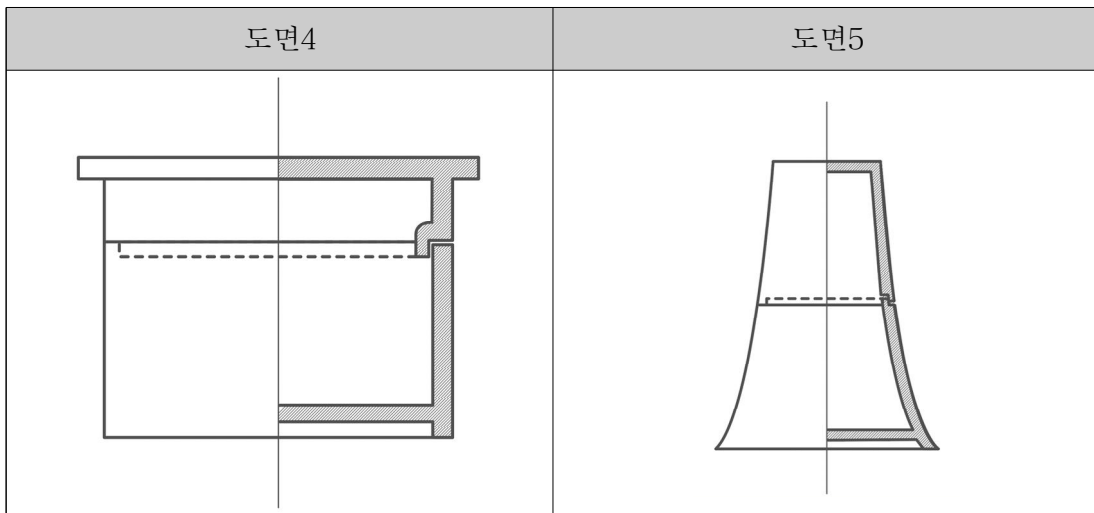
도29 ①형태를 사용한 합 도면1, 2, 3

도면1은 긴 원통형의 보편적인 형태의 합이다. 몸통의 위쪽부분에서 곡선이 이어지며 납작한 뚜껑이 덮여있어 날개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몸통이 길기 때문에 화병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낮은 형태로 제작된다면 부피가 있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다. 도면2와 도면3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사각형의 합이다. 도면2는 낮은 높이의 합으로 액세서리같이 작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다. 도면3은 도면2보다 높이가 높아 커피원두나 차잎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표7 합 의 현대적 변용 분류 ②

NO.	형태	분류
②	두 기물이 결합하는 형태(뚜껑과 몸통의 비율이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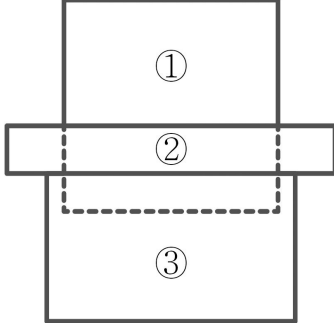
②형태는 ①형태와 같은 방식이지만 뚜껑과 몸통이 비슷한 비율로 되어있고, 합을 열었을 때 각 기물이 따로 쓰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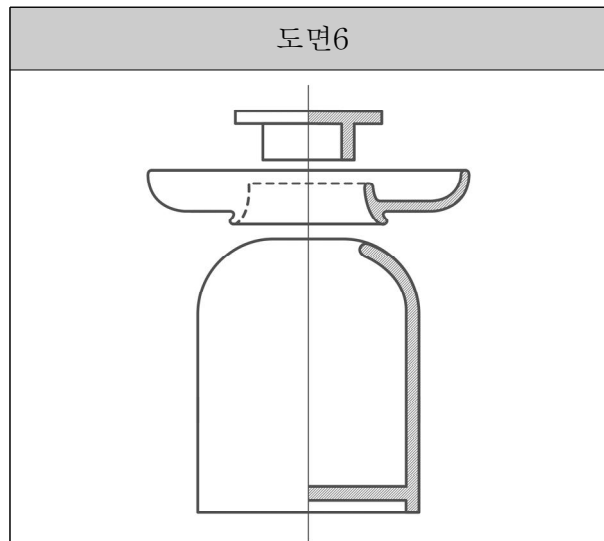
도30 ②형태를 사용한 합 도면4, 5

도면 4는 원통형의 뚜껑에 날개가 달린 형태의 합이다. 뚜껑과 몸통이 합쳐져 있어도 합의 기능만이 아닌 다른 쓰임을 갖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도면5는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곡선이 들어간 합이다. 몸통과 뚜껑의 비율이 비슷하며 보관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뚜껑과 몸통을 따로 두어도 각각의 기능을 갖도록 디자인하였다.

표8 합의 현대적 변용 분류 ③

NO.	형태	분류
③	세 기물이 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형태	

③형태는 세 기물이 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형태이다. 몸통에 얹을 수 있는 하나의 기물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을 때도 쓰임을 가지며 따로 분리해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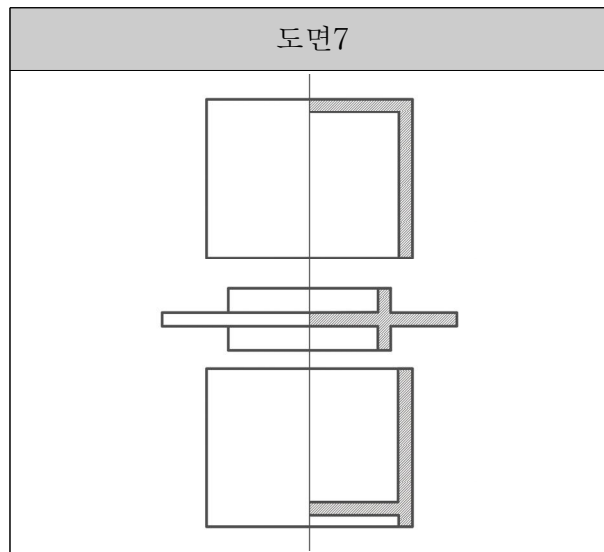
도31 ③형태를 사용한 합 도면6

도면 6은 도면1의 형태의 몸통과 비슷하지만 입구부분이 좁고 몸통보다 뚜껑의 비율이 작다. 몸통 위에 얹혀진 기물은 하나로 합쳐있을 때와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도 쓰임을 가진다. 뚜껑의 굵이 높아 뒤집었을 때 종지그릇으로 쓰일 수 있고, 몸통은 물병이나 화병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9 합의 현대적 변용 분류 ④

NO.	형태	분류
④	하나의 기물이 두 기물 사이를 분리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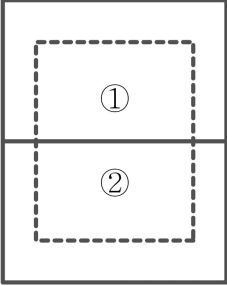
④형태는 하나의 기물이 두 기물 사이의 공간을 분리하는 형태이다. 뚜껑의 역할을 하는 기물이 하나의 공간을 분리시켜 보관의 기능이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간에 들어가는 기물은 뚜껑의 역할도 하지만 몸통의 역할도 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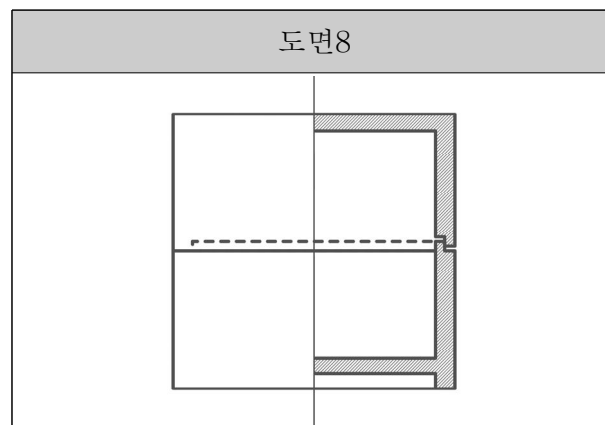
도32 ④형태를 사용한 합 도면7

도면7은 몸통 사이에 뚜껑이 들어가는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 몸통의 비율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다양한 높이로 제작한다. 낮은 몸통 중지나 작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고, 높은 몸통은 컵이나 꽃이로 사용할 수 있다.

표10 합 의 현대적 변용 분류 ⑤

NO.	형태	분류
⑤	두 기물이 결합된 형태가 모여 하나를 이루는 형태	

⑤형태는 두 기물이 결합된 형태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형태이다. 작은 합이 큰 합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가장 큰 합에 모든 합을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도33 ⑤형태를 사용한 합 도면8

도면8은 뚜껑과 몸통이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액세서리 합에서부터 큰 볼(Bowl)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디자인하였다. 큰 합에 작은 합을 넣을 수 있어 수납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작업이란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다른 요소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지기법을 재해석한 표현을 사용하여 장식적인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자가 태어나고 자라온 곳인 제주의 독특한 자연재료를 활용한다면 이론적 고찰과정에서 분석한 기존 합과 차별화를 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유약개발을 진행하였다.

## IV. 제주도양을 활용한 유약 개발

### 1. 유약 개발 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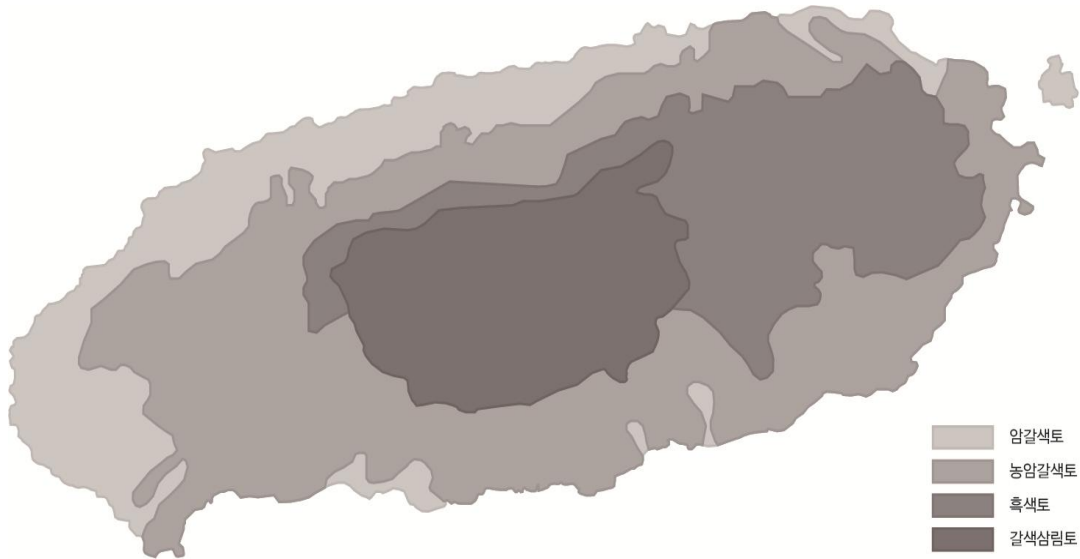
도자 예술에서 재료는 독특함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작가 개인 작품의 고유한 특징이 된다. 몸통이 되는 점토, 옷이 되는 유약, 화장품이 되는 화장토 등 활용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유약 개발 실험을 진행하였다.

분청사기는 지역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지역적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과, 표현한 문양을 드러내기 위해 투명유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는 화산섬으로 도예 작업에서 심도 있는 재료개발 연구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를 활용하여 자연환경이 주는 재료를 활용한다면 분청사기와 같은 지역성이 담긴 특색 있는 도예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었다.

제주 도양은 철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용융제를 첨가한 실험을 진행하여 도예용 유약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시료를 개발하고, 비율 변화에 따른 실험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시편은 분청토와 백색화장토를 분장한 분청토 그리고 백색자기토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에 있는 도양을 이용해서 유약 개발을 진행한 뒤 적합한 유약을 선정하여 시작품에 적용함으로써 기존과 다른 지역색이 묻어나는 색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주토양의 종류와 특징



도34 제주토양의 분포 현황

제주에는 오랜 화산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지역이므로 토양 모재의 생성 시기와 퇴적 양상이 상이하므로, 토양생성인자(土壤生成因子)의 고도에 따른 수직적인 변화가 크므로 동일한 모재를 지닐지라도 토양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주의 토양은 크게 화산회토(火山灰土)와 비화산회토(非火山灰土)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속칭 뜯땅으로 알려진 화산회토(흑색토, 농암갈색토)가 제주도의 남부와 동북부 그리고 오름에 분포하는 반면 육지부 토양과 유사한 비화산회토인 암갈색토가 북부와 북서부에 분포한다. (도34)

제주 화산회토의 특성은 흑색을 띠고 토양입자가 가볍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암갈색으로 나타나는 토양은 오래된 토양이라고 할 수 있고, 흑색을 나타낼수록 최근에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토양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1) 화산회토(火山灰土)

화산회토는 흑색토와 농암갈색토로 구분된다. 흑색토는 제주시 구좌읍의 중산간 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검은색의 토양이다. 배수가 양호하며 자갈이 섞인 미사질 식양토(微沙質 埴壤土)이다. 현무암 기원의 화산회를 모재로 한 토양이며, 유기물의 함량은 매우 많아 강한 산성 토양이다. 인산을 흡착하는 힘이 일반 토양에 비해 3배 이상 강하여 작물양분이 결핍되기 쉽고 논농사와 보리농사가 잘 되지 않는 토양이다. 특히, 보수력이 크지만 투수성이 높기 때문에 가뭄의 피해를 잘 입는다. 흑색토는 대부분 초지로 이용되고 있다.

농암갈색토는 제주시 구좌읍을 제외한 조천읍부터 한경면까지의 중산간 지대에 분포한다. 제주도 남부지역과 해안 지대 그리고 중산간 전역에 걸쳐 분포하므로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양이다. 농암갈색토는 현무암 기원의 화산회를 모재로 한 토양이다. 유기물 함량은 매우 많으며 강한 산성 토양이다. 자연 비옥도는 보통이며, 밭이나 감귤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2) 비화산회토(非火山灰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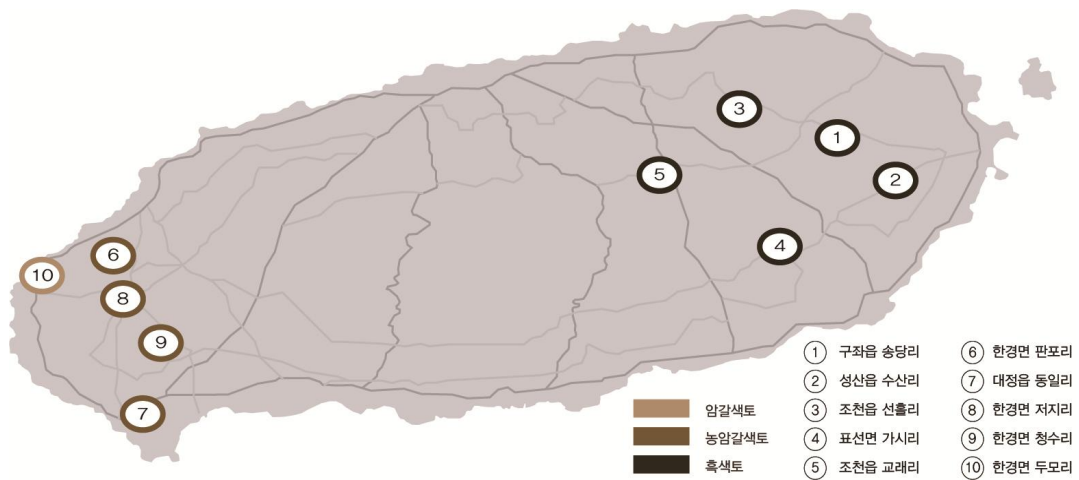
제주의 비화산회토는 암갈색토로 표고 200m 이하 해안 지대에 주로 분포하며 현무암 기원의 충적층을 모재로 한 토양이다. 배수가 양호한 미사질 식양토(微沙質 埴壤土) 또는 미사질 식토(微沙質 埴土)로 토양 구조는 입상이나 괴상이다. 심토는 암황갈색이나 황갈색의 자갈을 함유한 미사질 양토 또는 미사질 식양토이다. 유기물의 함량은 적으며 매우 약한 산성 토양이다. 그러나 자연 비옥도가 높아 대부분 논이나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주에서는 밭벼가 서부지역에서 일부 재배 되고 있다. 제주의 비화산회토인 암갈색토는 육지에 토양과 비슷하지만 다른 성질의 토양이다.

## 2. 실험과정

제주 토양을 이용한 도예유약 개발 실험은 개발 유약의 용융상태, 발색 그리고 활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석회석 비율변화에 따른 유약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 1) 토양시료채취 및 유약조성

#### (1) 토양 시료 채취



도35 시료 채취 지역

본 연구의 실험대상은 제주도 내에 분포하고 있는 화산회토(흑색토, 농암갈색토)와 비화산회토(암갈색토)이다. 화산회토 시료채취는 제주의 형성과정 고찰을 바탕으로 흑색토가 분포하는 동쪽지역의 5곳, 농암갈색토가 분포하는 서쪽지역의 4곳, 비화산회토가 분포하는 서쪽지역의 암갈색토 1곳을 선정하여 채취하였다. (도35) 같은 토양이라도 모재의 생성시기와 퇴적양상이 상이하며 동일한 모재를 지니더라도 토양의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이유는 제주가 여러 단계를 거쳐 형성된 섬이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적인 요인으로 인해 토양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되는 토양은 화산회토(흑색토 5곳, 농암갈색토 4곳)와 비화산회토(암갈색토 1곳) 로 구분되며 총 10곳으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 대상은 다

음과 같다. 흑색토는 ①구좌읍 송당리, ②성산읍 수산리, ③조천읍 선흘리, ④표선면 가시리, ⑤조천읍 교래리로 선정하였고(도36), 농암갈색토는 ⑥한경면 판포리, ⑦대정읍 동일리, ⑧한경면 저지리, ⑨한경면 청수리로 선정하였다.(도37) 또한 화산재가 포함되지 않은 비화산회토인 암갈색토는 ⑩한경면 두모리로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도38)



도36 화산회토(火山灰土) - 흑색토



도37 화산회토(火山灰土) - 농암갈색토



도38 비화산회토(非火山灰土) - 암갈색토

(2) 분쇄 및 수비

실험을 위해 채취한 흑색토, 농암갈색토, 암갈색토에 포함되어 있는 크기가 큰 암석덩어리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넓은 채를 이용하여 1차로 거른 뒤 분쇄기를 이용하여 잘게 분쇄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정확한 유약 개발 실험을 위해 공기 중에서 충분히 건조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유는 채취한 토양 시료 속에 많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50목(目) 채에 거른 토양재료만을 사용하였다.

(3) 석회석을 용융제로 사용한 유약 조성

석회석을 용융제로 사용한 유약은 토양시료와 석회석을 6 : 4, 7 : 3의 비율로 조성하고 물과 충분히 교반시켰다. (도39)



도39 석회석과 배합한 유약 제작과정

첫째, 150목(目) 채로 걸러낸 토양 시료분말을 준비한다.

둘째, 배합할 석회석을 멍침 없게 채에 한번 걸러준 뒤 준비한다.

셋째, 시료분말과 석회석을 6 : 4, 7 : 3의 비율로 배합시료를 깨끗한 통에 투입하고, 물을 1kg씩 넣어준다.

넷째, 배합한 시료를 교반시킨 뒤 150목(目) 채로 다시 한 번 걸러준다. 석회석이 첨가되면서 색이 연한 모습을 보였다.

## 2) 소지(素地) 및 시편 제작

### (1) 소지

제주 토양을 활용한 유약 개발 실험은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를 유약으로써의 활용가능성과 발색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므로 여러 종류의 소지를 사용하였다. 소지에 함유된 성분들은 소성 시 유약의 색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예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지들 가운데 두 종류의 소지를 사용하였다. 시편제작에는 동영세라믹스의 소지로 제작한 백색자기토, 분청토, 백색 화장토로 분장한 분청토로 총 3종이다.

### (2) 시편제작

시편은 발색과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균일한 두께로 가로와 세로를 90mm, 높이를 50mm의 크기의 잔으로 제작하였다. 모든 시편은 유약의 발색과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시편의 두께와 크기를 모두 동일하게 하였다.



도40 석회석을 용융제로 사용한 유약용 소지 시편  
< 백색자기토, 분청토, 분청토(화장기법) 1차 소성 후 >

### 3) 시유(施釉) 및 소성(燒成)

#### (1) 시유(施釉)

시유는 소지시편에 유약의 두께가 1.0 ~1.5mm 정도 되도록 손으로 담금 시유하였다. 분청토와 혼합토를 이용한 시편보다 백색자기토 시편에서 더 갈라짐이 심해지는 현상을 보였다. 시유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예 유약들과 비교해 봐도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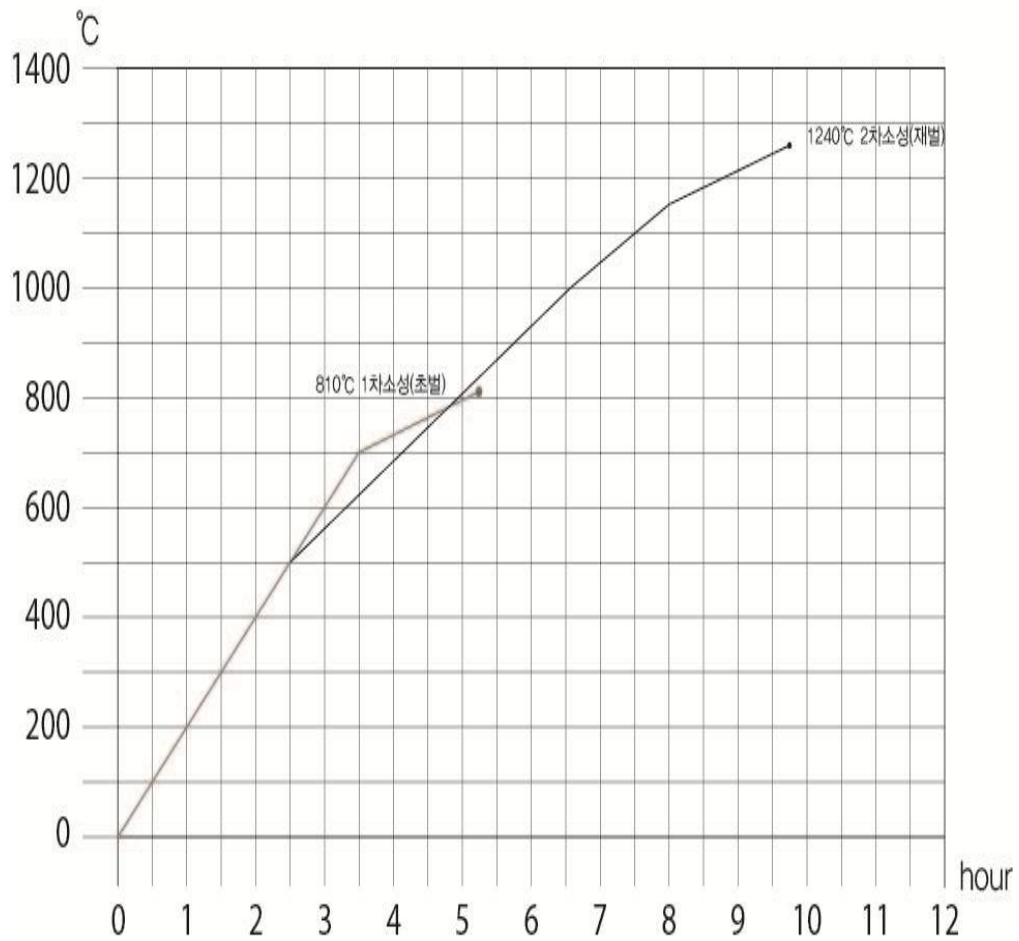
도41 석회석을 용융제로 사용한 유약을 시유한 소지시편  
송당리, 수산리, 선흘리, 가시리, 교래리



도42 석회석을 용융제로 사용한 유약을 시유한 소지시편  
판포리, 대정리, 저지리, 청수리, 두모리(비화산회토),

(2) 소성(燒成)

유약이 용융되는 온도인 1250℃를 기준온도로 설정하고 개발한 유약의 용융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석회석을 용융제로 사용한 유약의 소지시편을 1250℃의 온도로 1회 소성하였다. 소성시간은 9시간 30분으로 8시간 동안 서서히 상승시키고 마지막 10분 간 온도를 유지하면서 소성을 진행하였다.



도43 소성온도 그래프

### 3. 실험결과 분석 및 소결

#### 1) 실험결과 분석

실험결과 분석은 실험에 사용한 소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 백색 자기토 시편의 유약 소성결과

	흑색토					농암갈색토				암갈색토
	송당	수산	선흘	가시	교래	판포	동일	저지	청수	두모
6 : 4										
7 : 3										

도44 백색자기토 시편 실험결과

석회석을 첨가제로 사용한 유약은 용융이 잘 이루어진 결과를 보였다. 6 : 4의 비율로 혼합한 유약은 석회석 함량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흘러내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송당리, 수산리, 선흘리, 가시리, 교래리, 저지리는 지저분하게 흐르는 모습이 관찰되어 유약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6 : 4비율 시편 중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보인 시편은 판포리, 동일리, 청수리, 두모리의 토양시편이었다. 판포리 시편에서는 표면 유리질과 광택이 많았고 유약이 잔 안쪽으로 고이면서 색 톤 차이가 생겼으며 작은 결정이 생기는 특징이 나타났다. 두모리 시편은 연한 녹색계열의 색상과 표면위에 결정이 많이 생기는 특징을 보였다. 동일리와 청수리 시편에서는 재유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청수리보다 동일리의 시편에서 광택이 더 나는 것으로 보아 용융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 3 비율로 혼합한 유약은 토양의 함량이 높아 6 : 4 비율보다 어두운 색상을 보였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발색이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다. 그 중 가장 독특하게 나타난 시편은 두모리, 동일리, 저지리, 청수리, 수산리, 선흘리였다. 수산리의 시편은 어두운 갈색계열의 색상을 보였고 호피무늬같은 결정상태가 관찰되



었다. 선흘리의 시편은 짙은 고동 색상을 보였고 유약이 갈라지면서 구름모양의 독특한 결정상태가 나타났다. 두모리의 시편은 깔끔한 표면에 광택이 있는 모습을 보였고 유약에서 기포가 생성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동일리와 청수리의 시편에서는 핑크빛이 도는 색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유약이 흐르면서 마블링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저지리의 시편은 6 : 4 비율에서는 지지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7 : 3비율에서 규칙적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가죽이 썩워진 듯 한 느낌이 있었다.

실험결과, 백색자기토 시편은 용융이 잘 이루어진 모습을 보였다. 석회석을 용융제로 사용한 유약 중에서는 토양의 함량이 높았을 때 색상이 대체적으로 어두워지는 특징을 나타냈으며, 흑색토보다 농암갈색토, 암갈색토에서 표면 유리질과 광택, 다양한 발색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보인 것은 판포리, 동일리, 저지리, 청수리의 농암갈색토, 두모리의 암갈색토이다.

(2) 분청토 시편의 유약 소성결과

	흑색토					농암갈색토				암갈색토
	송당	수산	선흘	가시	교래	판포	동일	저지	청수	두모
6 : 4										
6 : 4 (화장 기법)										
7 : 3										
7 : 3 (화장 기법)										

도45 분청토 시편 소성결과

석회석을 용융제로 사용한 유약의 분청토 시편에서는 화장토를 입히지 않은 것보다 입혔을 때 표면유리질이 더 형성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양한 색채가 나타났고, 백색자기토와는 또 다른 색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초록 계열(Olive green)의 색상이 나타났다. 송당리 토양으로 만든 유약에서 다른 시

편에 비해 매트한 질감에 광택이 없는 결과를 보였으며 용융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6 : 4비율의 유약보다 7 : 3 비율에서 더 용융된 모습이었고 그 중 수산리, 가시리, 동일리, 청수리에서 다른 유약과 다르게 독특한 색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수산리의 시편은 화장토 유무에 상관없이 비슷한 황갈색계열에 색상을 보였으며, 화장토를 입혔을 때 결정형성이 더욱 많은 모습이였다. 가시리의 시편은 화장토가 없을 때에는 매트한 질감이었지만 화장토를 입혔을 때 광택과 색상에서 고동색, 황갈색, 검은색 등 여러 색상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동일리의 시편은 화장토를 입히지 않았을 때 이상적이었으며 부드러운 초록계열의 색상이 나타났다. 청수리의 시편은 다른 시편들과 다르게 화장토를 입혔을 때 핑크빛의 색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흑색토를 이용한 유약은 거친 표면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색상에서 독특함이 관찰되었고 농암갈색토, 암갈색토를 사용한 유약에서 표면 광택과 색상이 독특하여 유약으로 사용하면 독특한 도예표현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었다.

전체적인 시편 결과를 분석하면 유약으로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나타낸 시편은 6 : 4 비율보다 7 : 3의 비율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 중 수산리, 가시리의 흑색토, 동일리, 청수리의 농암갈색토이다. 또한 화장토를 입힌 시편에서 좋은 소성결과가 나타났는데 색상에서도 화장토의 두께가 작용하면서 다양한 색상을 보였다.<sup>13)</sup>

---

13) 고은지·오창윤, 「제주토양<화산회토(火山灰土),비화산회토(非火山灰土)>을 이용한 도예유약 개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Vol.16 No.3, 2019. p.45-55

## 2) 소결

제주토양을 활용한 유약 개발 실험 결과, 전체적으로 암갈색토는 투명유처럼 화장토의 밝은 백색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태토의 색이 완전히 비치면서 연한 녹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암갈색토는 암갈색토와 비슷하지만 좀 더 진하고 불투명하게 발색되었다. 흑색토의 유약은 대체로 완전히 태토의 색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색상을 띄지만 화장토 유무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한 유약 중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한 유약은 청수리의 6:4와 7:3, 두모리의 6:4와 7:3, 가시리의 7:3, 동일리의 7:3, 판포리의 7:3 이다. 청수리의 농암갈색토와 석회석을 6:4 비율로 제작한 유약은 백색자기토에서 흘러내리면서 맏히는 모습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났고, 7:3 비율의 유약은 분청토와 백색자기토에서 레드브라운 계열로 발색되었다. 두모리의 암갈색토로 제작한 유약은 분청토와 백색자기토에서 모두 화장토를 바른 붓 자국까지 보일 정도로 투명하게 발색되었다. 가시리의 흑색토와 석회석을 7:3 비율로 제작한 유약은 백색자기토 보다 분청토에서 높은 안정도를 보였으며 화장토에 의해 나타나는 색상차이가 강하게 나타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었다. 동일리의 농암갈색토와 석회석을 7:3 비율로 제작한 유약은 분청토에서 어두운 녹색계열의 색상으로 나타났고, 백색자기토에서는 청수리의 7:3유약보다 진한 레드브라운 계열의 색상으로 발색되었다. 판포리 농암갈색토와 석회석을 7:3 비율로 제작한 유약은 태토의 색이 드러나지만 두모리 흙으로 제작한 유약보다 투명도가 낮았고 다크브라운 계열로 발색되었다.

분청사기는 투명유를 사용하여 어두운 태토에 백색의 화장토를 바르고 새긴 문양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일곱 가지의 기법 중 박지기법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색상대비에서 흑과 백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개발한 유약의 다채로운 색상을 활용한다면 재미있고 변화 있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 V. 도자합 개발 연구 및 유약 적용

### 1. 시작품 제작과정

본 연구의 시작품 제작은 회토분장백사기(灰土粉粧白沙器)만을 사용한 것만이 아닌 도출해가는 과정으로 기존에 분청사기 기법을 이용한 작품 3점, 분청토와 백색자기토를 함께 사용한 작품 2점, 회토분장백사기 작품 3점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는 변화하는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을 이루기 위한 이유에서이다.

제작 과정에서 분청사기 박지기법은 재해석하여 새로운 표현기법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합은 변용하여 현대적인 미감과 어울릴 수 있는 시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료를 활용한 유약을 사용함으로써 전통을 일방적인 모방이 아닌 개념적 차원으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오늘날의 도예가들은 전통도자를 재현하는 전승형태를 비롯하여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계승하려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분청사기는 독특한 기법과 추상성을 기반으로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예술작품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가장 한국적인 도자로 평가됨에 따라 많은 도예가, 애호가를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그 예술성에 주목하고 있다.<sup>14)</sup>

이에 따라 여러 현대 분청사기들 가운데에서 박지기법에 대한 자료조사 중 역박지기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역발상 할 수 있었던 부분을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기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자연환경이 작업에 영향을 끼친 분청사기를 보고 자연재료를 활용한다면 지역색을 나타낼 수 있는 유약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합의 형태는 모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직선적인 형태를 주로 사용하였고, 깔끔하고 간결한 선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곡선적 요소를 배제하였다.

14) 조성남, "분청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현대도자의 조형성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6, 2014, p.427

시작품 제작과정은 크게 6단계로 성형, 조각, 건조, 1차 소성, 시유, 2차 소성 순으로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물레성형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분청도와 백색자기토를 사용하였다. 합은 뚜껑과 몸통이 정확하게 맞물려야 한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기물의 수축률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기물의 두께를 1cm이상으로 제작한 뒤 반건조 상태가 되었을 때 굽을 깎는 단계에서 두 개의 기물의 결합 부분을 맞추도록 하였다. 화장토를 바를 때 균열이 가지 않도록 반건조 상태일 때 분청토에 백색의 화장토를, 백색자기토에는 어두운 회토를 얇게 겹쳐 분장하고 문양을 새긴 뒤, 뒤틀리지 않도록 맞물린 상태로 천천히 건조하였다.

표11 화장토(회토분장) 조합비

원료	조합비 (%)
화산회토(농암갈색토)	70
와목	13
규석	7
장석	10

표12 백색화장토 조합비

원료	조합비 (%)
와목	40
규석	20
장석	30
지르콘	10

표13투명유 조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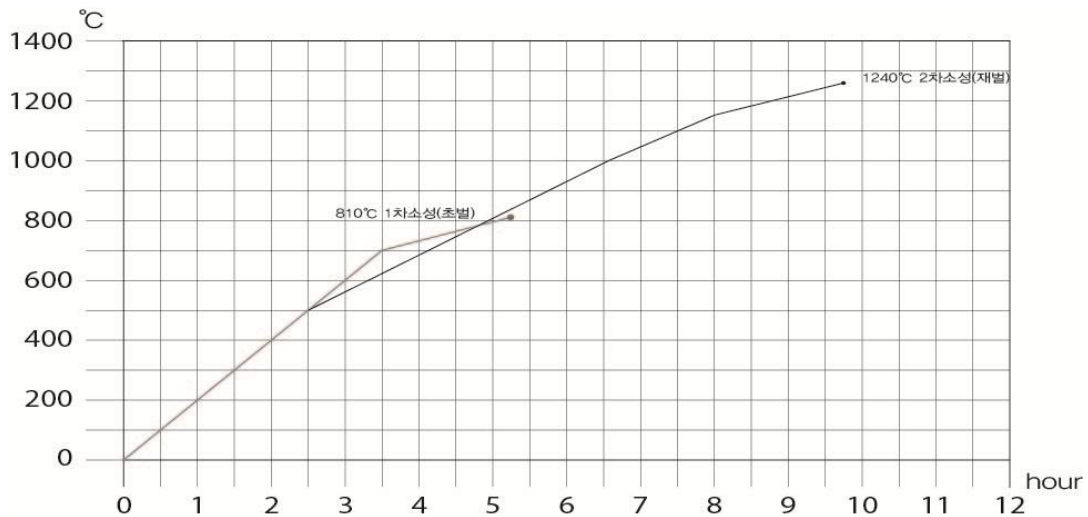
원료	조합비 (%)
장 석	40
도 석	15
규 석	20
석 회 석	15
활 석	2
바 립	0.5
아 연	0.5
카 오 린	7

표14제주토양유약 조합비

원료	조합비 (%)	
토양시료	60	70
석회석	40	30

1차 소성은 기물에 남아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파손의 위험을 줄이고 시유했을 때 유약이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제작된 시작품은 모두 8시간 동안 810℃로 1차 소성하였다. 시유과정은 앞에 실험과정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청수리, 대정리, 판포리, 두모리, 가시리 지역의 토양으로 제작한 유약들을 시작품에 적용하였다. 또한 투명유를 함께 사용하며 본래 흙의 색감을 드러나게 하는 부분도 활용하였다.

화장도를 활용하는 시작품에서는 분장한 부분과 분장하지 않은 부분에서 색상 차이가 나는 유약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시유방법은 기물에 따라 담금 시유와 부분적으로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분무시유를 사용하였다. 2차 소성은 얇을수록 잘 휘어지는 분청토와 백색자기토의 특성을 고려하여 1240℃로 산화소성하였다.



도46 소성온도 그래프

## 2. 시작품 설명

### 시작품 1. 박지문합

본 시작품은 분청토에 백색의 화장토를 발라 박지기법을 활용하여 문양을 남겨 낸 합이다. 전체적인 과정에서 첫 번째 시작품은 박지기법을 인용한 형태의 작품이다. 기물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직선으로 곧게 뻗은 느낌과 높고 낮은 다양한 원통형 합을 제작하여 형태의 변화를 주었다. 작품은 전체 가로 60cm, 세로 20cm, 높이 24cm으로 제작하였다.

박지기법이 활용된 옛 분청사기를 살펴보면 모란문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고, 합의 입구부분은 모란문과 자주 함께 사용되는 연관문대로 띠를 둘러 조화롭게 장식하였다.

실험한 유약 중 두모리의 농암갈색토와 석회석을 7 : 3으로 배합한 유약을 사용하였다. 분청사기에 살펴보면 태토와 화장토가 비치는 투명한 유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발색되는 두모리 7:3 유약을 사용하였다. 유약으로 인해 백색의 화장토와 어두운 분청토의 확연한 대비를 보이며, 문양 부분에 붓 자국도 확인할 수 있어 대체적으로 맑은 느낌을 보여준다. 색상은 연한 녹색계열을 띄며 유가 묻쳐 흘러내리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다. 소성 방법은 담금 시유하여 1,240℃로 산화소성하였다.



시작품 1. 박지문합



도47 시작품 1의 세부 이미지



도48 시작품 1의 세부 이미지



## 시작품 2. 박지문 결합

본 시작품은 분청토 위에 백색의 화장토를 바른 후 박지기법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문양이 사용된 시작품1과는 다르게 부분적으로 박지문을 사용하여 문양이 없는 여백의 공간에서 유약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색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이 안쪽 면은 분장하지 않아 합의 뚜껑을 열었을 때 안쪽과 바깥쪽에 색상대비가 강하게 나도록 하였다.

제작 방법은 판성형기법을 적용하여 분청으로 판을 성형해 재단하고, 뚜껑보다 몸통의 비율이 큰 사각합을 제작하였다. 기존에 원형 합이 아닌 직육면체의 합을 통해 물레성형방법에서 벗어난 방식을 사용하였다. 작품의 사이즈는 각각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7cm로 제작되었다.

Ⅲ장 1절의 박지기법을 재해석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도출해낸 표현기법을 문양의 배경부분에 사용하였고, 화장토를 긁어낸 부분에서 태토의 색이 드러남과 동시에 긁어낸 결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 표4의 표현방법 연구에서 사용한 ⑤도구를 사용하여 배경부분을 긁어내었다. 문양은 모란문을 부분적으로 배치하여 합의 뚜껑에서부터 몸통까지 이어지도록 장식하였으며, 사용자에 의해 문양을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한 유약 중 가시리의 흑색토와 석회석을 7:3으로 배합한 유약은 화장토를 바른 부분과 안 바른 부분이 색상대비가 나는 특징이 있다. 화장토를 바른 부분은 밝은 갈색계열에 베이지 색상을 띄고, 바르지 않은 태토 부분은 흑토에 가까운 색을 띄었다. 소성 방법은 담금 시유하여 1,240℃로 산화소성하였다.



시작품 2. 박지문 결합



도49 시작품 2의 세부 이미지



도50 시작품 2의 세부 이미지

### 시작품 3. 박지 결, 합

본 시작품은 역박지기법을 사용하여 분청토에 백색 화장토를 발라 문양을 남겨 내었다. 배경이 아닌 문양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문양표현은 앞선 시작품들과 다르게 분청사기의 문양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 연구자의 주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을 추상화한 이미지로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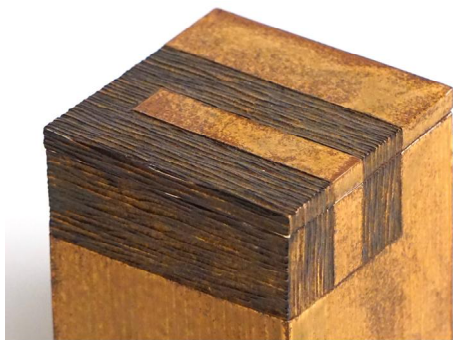
합의 문양은 길게 늘어진 나무들을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표현하였다. 표4의 박지기법의 표현 방법 연구에서 ⑦도구를 사용하여 문양을 긁어내었으며, 도구로 인해 남겨진 질감과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기물 전체를 문양으로 화려하게 배치하는 것이 아닌 유약의 흐름성과 화장토의 발림성을 드러내기 위해 여백을 활용하여 문양을 배치하였다. 작품의 사이즈는 가로 7cm, 세로 7cm, 높이 10cm이다.

분청토로 판 성형기법을 사용하고, 반 건조 상태인 재단한 판을 접합하여 제작하였다. 쓰임에 따라 용도는 달라지겠지만 시작품 2보다 넓이가 좁고, 높은 사이즈로 제작하여 작은 차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실험한 유약 중 청수리의 농암갈색토와 석회석을 7:3으로 배합한 유약을 사용하였다. 청수리의 7 : 3 유약은 화장토를 바른 부분에서 황토색의 색상을 띄고 바르지 않은 태토 부분은 고동색에 가까운 색상을 띄었다. 소성 방법은 담금 시유하여 1,240℃로 산화소성하였다.



시작품 3. 박지 결, 합



도51 시작품 3의 세부 이미지



도52 시작품 3의 세부 이미지

#### 시작품 4. 결과 합

본 시작품은 뚜껑이 닫혀있어도 보관 이외의 기능을 갖는 합이다. 분청토만 사용한 앞의 시작품들과는 다르게 백색자기토를 사용하여 재료적 측면에서 변이를 시도하였다. 시작품 4는 세 개의 기물이 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겉으로 보기에 뚜껑과 몸통 사이에 기물이 있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보이지만, 몸통에 얹혀있는 형태로 보관하는 점 이외에 내용물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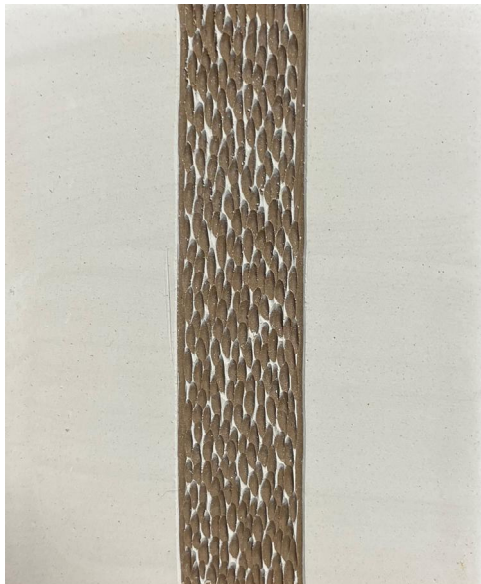
합의 뚜껑은 굽 부분이 길어 뒤집었을 때 작은 종지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 몸통은 위아래로 긴 형태를 가지고 있어 액체를 담는데 용이하도록 제작하였다. 몸통 위에 얹힌 기물은 합이 결합되었을 때와 분리되었을 때 동시에 쓰임을 가진다. 뚜껑 부분에 굽어낸 표현이 날개형태의 접시와 몸통에 수직으로 이어지지만 사용자가 돌려놓는 방향으로 문양을 배치할 수 있다.

작품의 사이즈는 가로 18cm, 세로 18cm, 높이 21cm이다. 제작 방법은 물레성형 기법을 이용하였고 분청토와 백색자기토를 사용하였다. 두 가지의 흙을 사용하여 색을 교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표4의 박지기법의 표현 방법 연구의 ④도구를 사용하여 굽어내었다. 분청토로 제작한 작품은 백색 화장토를 분장하고, 백색자기토로 제작한 작품은 문양을 파내는 역박지기법을 사용하였다.

실험한 유약 중 분청토 합에는 동일리의 농암갈색토와 석회석을 7:3으로 배합한 유약을 사용하고 안쪽은 투명유를 사용하였다. 백색자기토를 사용한 합은 투명유를 바르고 안쪽은 두모리의 암갈색토와 석회석을 6:4로 배합한 유약을 사용하였다. 소성 방법은 이중 시유하여 1,240℃로 산화소성하였다.



시작품 4. 결과 합



도53 시작품 4의 작업과정 이미지



도54 시작품 4의 세부 이미지

## 시작품 5. 나무 결합

본 시작품은 화장토를 분장하여 굽어내는 회토분장백사기 합이다. 화장토를 분장하여 배경을 굽어내는 박지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장하지 않은 기물을 함께 사용하여 색상의 변화를 주었다.

시작품 5는 합의 기능을 변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디자인하였다. 합은 굽의 유무에 따라 뚜껑과 몸통을 구분할 수 있다. 입구 부분의 사이즈를 일정한 크기로 제작하여 높낮이가 다른 기물이라도 서로 결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합의 뚜껑이 두 개의 몸통 사이로 결합함으로써, 보관하는 공간을 두 개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의 기물에 다른 기물이 관통해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뚜껑이 덮개로 쓰이는 한가지의 기능을 벗어나도록 하였다.

높은 기물은 컵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낮은 기물은 작은 사이즈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높낮이를 직접 배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를 갖는다. 작품의 전체 사이즈는 가로 45cm, 세로 15cm, 높이 30cm이다.

제작방법은 백색자기토를 사용하여 물레성형기법으로 제작하였다. 합의 문양은 직선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였으며, 문양의 배경을 표4의 박지기법의 표현 방법 연구의 ⑥도구를 이용하여 나무결의 문양을 새겨내었다. 실험한 유약 중 판포리의 농암갈색토와 석회석을 7 : 3으로 배합한 유약과 투명유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소성 방법은 기물 안쪽은 투명유 바깥쪽은 판포리 7 : 3 유약으로 이중 시유하여 1,240℃로 산화소성하였다.



시작품 5. 나무 결,합



도55 시작품 5의 작업과정 이미지



도56 시작품 5의 세부 이미지



## 시작품 6. 제주 밭 결합

본 시작품은 회토분장백사기 형태의 합이며, 분장한 회토를 강하게 드러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합의 형태는 뚜껑의 윗부분에 간단한 디저트를 올려놓거나 다른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 몸통보다 넓은 날개가 있는 작은 소반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뚜껑은 뒤집었을 때에도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뚜껑과 몸통의 높낮이를 사용자가 원하는 높이로 교차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결합하는 부분을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하였다.

합의 윗면에는 제주의 밭을 모티브로 박지기법을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돌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모던하게 직선적으로 표현하였다. 돌담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굽어내어 박지기법을 재해석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표4의 박지기법의 표현 방법 연구에서 ⑦도구를 이용하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굽어내는 힘과 속도에 따라 결의 흔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제작자가 굽어낸 질감을 선택적으로 남겨낼 수 있어, 밭마다 기르는 작물이 다르듯 문양의 구역마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표현하였다.

합의 뚜껑 옆면 부분에는 회토를 전체적으로 분장하여, 몸통과 색상대비를 통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각각의 사이즈는 가로 15cm, 세로 15cm, 높이 16cm이다. 또한 투명유를 사용하여 회토의 어두운 색과 백색자기토의 밝은 색상을 대비시켜 현대적인 미감에도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다.

뚜껑의 안쪽면은 실험한 유약 중 두모리의 암갈색토와 석회석을 7:3으로 배합한 유약을 사용하였다. 합을 열었을 때 연녹색의 색상을 확인할 수 있어 몸통만 사용할 때 연녹색과 백색의 색상대비 효과를 주었다. 합의 겉면 부분에 제작한 화장토(회토)를 분장하였고, 투명유를 시유하여 소성하였다. 소성 방법은 이중 시유하여 1,240℃로 산화소성하였다.



시작품 6. 제주 밭 결,합



도57 시작품 6의 세부 이미지



도58 시작품 6의 세부 이미지

## 시작품 7. 오름 곁, 합

본 시작품은 합의 보관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뚜껑과 몸통이 분리되어도 쓰임새를 갖도록 변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합의 아랫부분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합의 뚜껑은 덮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뒤집었을 때에도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넓은 형태의 합은 접시, 높은 형태의 합은 화병 또는 물병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작품의 전체 사이즈는 가로 43cm, 세로 25cm, 높이 32cm이다.

시작품 7은 백색자기토에 회토를 분장하여 회토분장백사기의 유형으로 제작하였다. 표4의 박지기법의 표현 방법 연구에서 ③,⑤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곁의 흔적을 다양하게 새겨 넣도록 하였다. 역박지기법으로 문양을 긁어내었고, 문양 안에서도 박지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긁어낸 흔적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고, 긁어내는 방향을 달리하여 다른 구역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에는 오름에 돌담으로 둘러싸인 무덤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추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문양을 장식하였다.

제작방법은 물레성형기법을 사용하였고 실험한 유약 중 청수리의 농암갈색토와 석회석을 7:3으로 배합한 유약을 사용하였다. 또한 화장토를 바른 부분과 바르지 않은 부분의 색상대비의 효과를 주었다. 소성 방법은 담금 시유하여 1,240℃로 산화소성하였다.



시작품 7. 오름 결, 합



도59 시작품 7의 작업과정 이미지



도60 시작품 7의 세부 이미지

## 시작품 8. 제주 바람 곁, 합

본 시작품은 다양한 제주의 색채를 활용하여 세트로 구성된 합 디자인이다. 시작품 8은 일정한 비율로 작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작은 합부터 제일 큰 합까지 모두 포개어 보관 수 있어 수납의 용이함을 가진다. 작은 사이즈의 경우 액세서리 합으로 사용하거나 종지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 큰 사이즈의 합인 경우 볼(bowl)로 사용할 수 있으며 뚜껑을 뒤집어서 사용하거나 윗면을 접시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접시로 사용할 때 다양한 사이즈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재밌는 요소를 가졌다. 작품의 전체 사이즈는 가로 27cm, 세로 27cm, 높이 22cm로 제작하였다.

합의 문양은 박지기법을 변용한 표현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제주의 바람을 모티브로 하였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손으로 느낄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알 수 있다. 그 바람의 곁을 따라 합에 새겨 넣었고 문양이 끝나는 부분에서 벽을 타고 아래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표4의 박지기법의 표현 방법 연구에서 ③, ⑤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곁의 흔적을 다양하게 새겨 넣도록 하였다. 뚜껑과 몸통을 돌려가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문양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다양한 유약을 사용함으로써 다채로운 색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색자기토로 제작된 기물 위에 회토를 분장한 회토분장백사기의 유형이며, 박지기법과 역박지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시작품에 사용한 유약은 청수리의 농암갈색토와 석회석을 6:4으로 배합한 유약, 동일리의 농암갈색토와 석회석을 7:3으로 배합한 유약, 판포리의 농암갈색토와 석회석을 7:3으로 배합한 유약, 두모리의 암갈색토와 석회석을 7:3으로 배합한 유약을 사용하였다. 제작한 유약과 흙의 색상대비를 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투명유와 이중 시유하였다. 이중시유의 경우 라텍스를 이용하여 먼저 제주 흙으로 만든 유약을 시유한 뒤, 라텍스를 제거하고 투명유를 분무 시유하였다. 투명유를 사용하여 제주의 흙으로 만든 유약의 색감이 더욱 또렷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밝은 연녹색의 유약에서부터 진한 브라운계열의 유약을 사용하여 다채로운 제주의 색을 표현하였다. 소성 방법은 이중 시유하여 1,240℃로 산화소성하였다.



시작품 8. 제주 바람 곁, 합



도61 시작품 8의 작업과정 이미지



도62 시작품 8의 세부 이미지

## VI. 결론

본 연구는 분청사기 박지기법의 재해석과 변용을 통해 도자합을 개발하고, 제주의 자연재료인 토양을 이용한 도예용 유약 개발을 진행한 후, 합에 적용함으로써 지역 색이 묻어나는 도자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지기법을 활용한 도예 작업을 진행 중 역박지기법에 대해 접한 후, 역으로 발상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전통을 새롭게 재해석·변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도자합을 제작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분청사기 박지기법의 시대적 배경, 기법과 합 의 종류, 특징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또한 현재 박지기법과 합이 사용되고 있는 작품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분청사기 박지기법의 활용이 단순히 옛 것의 형태를 차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고찰 과정에서 화장토를 분장하고 도구로 배경을 긁어내며 생긴 결의 흔적에 주목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도예 작업에 적용한다면 새로운 도자표현의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둘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분청사기 박지기법을 재해석과 변용을 통해 단순히 장식기법의 변이가 아닌 새로운 범주로 해석하여 차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청사기 박지기법에 대한 재해석은 역박지기법처럼 발상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청사기 제작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분청토 위에 백색 화장토를 분장하지만, 밝은 백색자기토 위에 어두운 회토를 분장함으로써 역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단순히 어두운 색의 화장토가 아닌 제주의 화산회토인 농암갈색토를 사용하여 화장토(회토분장)를 제작해 특색 있는 작업을 모색하였다. 이를 ‘회토를 분장한 백색의 사기’라는 뜻으로 회토분장백사기(灰土粉粧白沙器)라고 개념 정의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박지기법의 표현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연구자가 기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현대적인 미감에 어울릴 수 있도록 변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자합은 일반적인 보관의 개념을 넘어 각각의 기물이 또 다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정의하여 현대적으로 변용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합은 제작과정에서 그 기능을 고정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다양한 쓰임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넷째, 분청사기의 다양한 특징 중 지역적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를 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주의 지역재료인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를 활용하여 유약 개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분청토와 백색자기토를 사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철분 함량이 높은 제주 토양을 활용하기 위해 석회석을 용융제로 사용하였다. 실험결과는 비율변화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유약 개발 실험 결과, 전체적으로 흙의 함량이 석회석보다 높을수록 안정화된 상태를 보였다. 또한 화장토 유무에 따라 색상의 대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었다. 도예 작업에 적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한 유약은 청수리의 6:4와 7:3, 두모리의 6:4와 7:3, 가시리의 7:3, 동일리의 7:3, 판포리의 7:3 유약이다. 이와 같은 다채로운 색상의 유약을 활용한다면, 독특한 표현과 지역성이 짙은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III장에서 재해석하여 도출한 표현기법과 IV장에서 선정된 제주토양을 활용한 유약을 적용하여 시작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현대적인 도자합과 지역 색이 묻어나는 도자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작업을 ‘회토분장백사기’로 개념 정의하여 제시한 점, 변용을 통해 다양한 표현기법을 도출한 점, 지역재료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여 다채로운 색감의 유약의 데이터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

연구의 시작점에서 마주한 역사 속 작은 흔적이 본 연구의 방향이 되었듯, 새로운 표현기법의 도출은 사소한 한 줄의 기록으로도 가능하다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이후 옛 전통을 현대화하는 도예 작업이 기존에 있는 양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도구와 표현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에 새로운 현대 분청사기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VII. 참고문헌

- 강경숙, 『韓國陶磁史』, 一志社, 1989.
- 강경숙, 『粉靑沙器』, 대원사, 1990
- 강경숙,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 곽경인, 「陶製 盒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국립전주박물관,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국립전주박물관, 2016
-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분청사기 :광주 충효동 요지』, 국립광주박물관, 2013
- 김재열, 『백자·분청사기 2』, 예경, 2000
- 김영원, 『계룡산분청사기』, 열린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2007
- 손명철 외, 『한국지리지 제주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2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양원색도감』,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2000
- 정양모, 『國寶 :白磁 粉靑沙器. v.8』, 한국 브리태니커, 1989
- 진홍섭 외, 『한국미술사』, 문예, 2006
- 고은지·오창윤, 「제주도양<화산회토(火山灰土),비화산회토(非火山灰土)>을 이용한 도예유약 개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Vol.16 No.3, 2019.
- 김정윤·오창윤, 「제주 해안지대 사질토를 활용한 도예용 소지 개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Vol.12, No.1, 2015
- 김진희·오창윤, 「제주 스킨리아를 이용한 철화 안료 개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Vol.15, No.3, 2018
- 박현주, 「분청사기 문양에 나타난 회화적 표현 연구 : 계룡산 철화분청사기의 물고기문양(魚文)을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Vol.15 No.2, 2018
- 최인 「제주도 화산회토를 이용한 비화산회토에 철화안료 개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양형석·오창윤, 「제주 화산석을 이용한 단미 유약 개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Vol.11, No.2, 2014
- 엄기성, 「결구법의 형태적 요소를 활용한 합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엄정자, 「분청 기법을 활용한 도제 합 연구 : 매화 문양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이연정, 「꽃을 소재로 한 도제 향합(香盒) 개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전지혜, 「마대가 있는 도자합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정은지, 「꽃살문을 응용한 陶製 粉靑盒 開發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조경희 「도제 합 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조성남, 「분청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현대도자의 조형성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16, 2014

최성재, 「계룡산 학봉리 분청사기 역박지문의 특성과 철화분청사기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vol.10, no.1, 2013

홍지수, 「1990년대 이후 한국 현대도예의 전통분청의 재해석과 변용」, 『한국기초조형학회』, vol.17, no.5, 2016